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가족 보고서

서울가족의 행복한 걸음에 동행하며

서울시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최근 서울 가족은 큰 변화의 흐름을 맞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이들 중에는 더 이상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학업과 직업, 사별, 이혼, 길어진 노년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로 성별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정 내 남성들의 돌봄 참여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녀양육을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갈 문제로 인식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와 가족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 서비스 제공과 학부모교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서울시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서울시 가족서비스도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화된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희망서울 행복가족> 보고서는 이러한 서울시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실태와 문제점, 미래지향적 가족모델과 새롭게 달라진 서울시 가족정책을 담았으며, 이 보고서가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 가족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족친화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희망서울 행복가족> 소통하는 서울 가족을 꿈꾸며

안녕하세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김명신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맞벌이 가구,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1인 가구는 2004년 65만명에서 2015년 520만명으로 급증하여 전체 가구의 27.2%에 다다른 등 한국 가족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높게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청소년은 삶을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도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정책과 서비스를 서울 시민들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가족과 서울가족정책에 대한 보고서 '희망 서울 행복가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서울가족 보고서는 서울시 가족의 현재와 가족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시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돌봄', '일, 쉼, 삶이 있는 서울', '모든 시민이 적당한 삶을 누리는 서울'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서울 가족 형태와 서울시 가족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 안내,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삶을 담고자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력이 '희망서울 행복가족-서울 가족 보고서'를 통해 가족 정책과 서비스를 잘 전달하는 시민 소통 보고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가족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시민 대상 가족 상담과 가족학교 프로그램,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명신



서울시
가족의
현재와 미래

1. 서울시 가족의 현재 모습

2. 서울시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

- 1) 서울시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가치
- 2) 서울시 가족정책 실현방법

서울시 가족정책 범주별 현황과 과제

1. 믿고 안심하는 돌봄이 있는 서울

1) 서울시가 책임지는 돌봄

- 가. 믿을만한 보육과 돌봄이 필요한 서울 가족
- 나. 안심하고 아이와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서울
-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2)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돌봄 공동체

- 가.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울 가족
- 나. 마을과 공동체가 살아있는 서울
-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2. 일·쉼·삶이 있는 서울

1) 생활시간 빈곤에서 벗어나기

- 가. 바쁜 삶에 쫓기는 서울 가족
- 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
-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2) 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 가. 제도는 있는데 이용은 어려운 서울 가족
- 나.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하는 서울
-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3. 모든 시민이 적정한 생활을 누리는 서울

1) 주거안심

- 가. 주거문제로 불안한 서울 가족
- 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는 서울
-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2) 생활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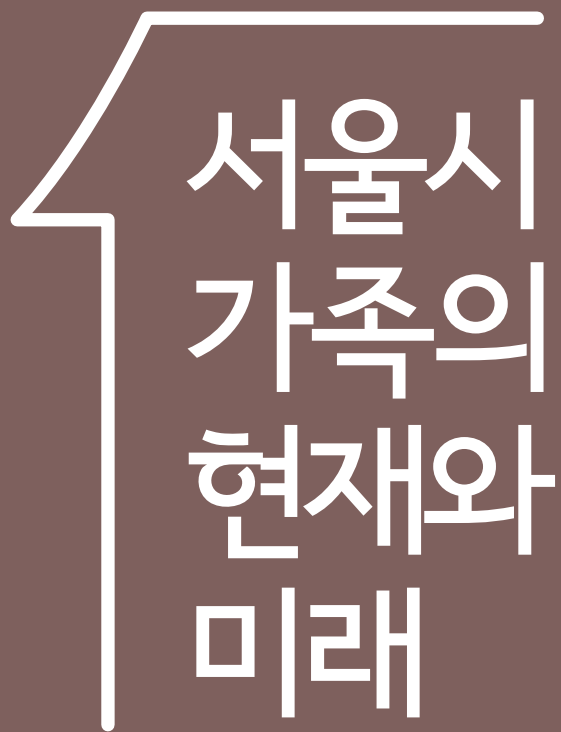
- 가. 생활이 불안정한 서울 가족
- 나. 안정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서울
-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3) 위기지원

- 가. 살면서 한번쯤 위기를 경험하는 서울 가족
- 나. 가족의 위기를 지원하는 서울
-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부록

가족 정책
네트워크
서울시 지역
유관 기관 정보



서울시
가족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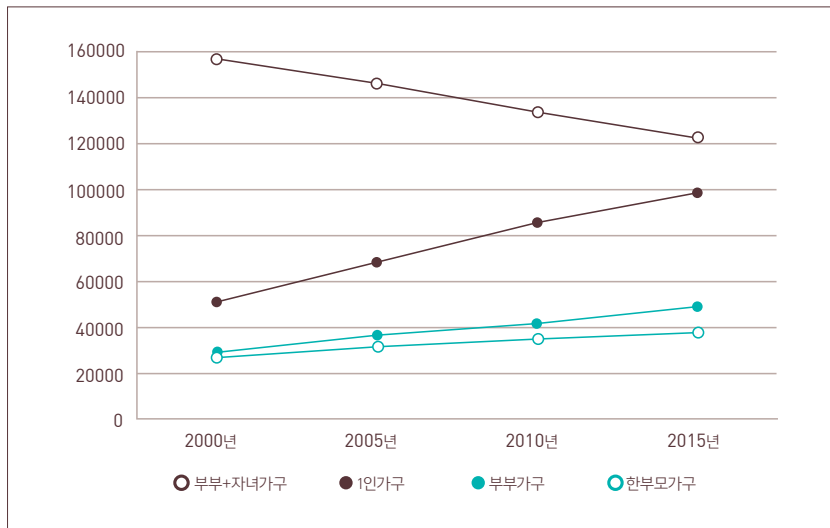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현재 모습

01

전형적 가족형태는 현저히 줄고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가구는 2000년 약 150만 가구에서 2015년 약 120만 가구로 줄어들었다. 대신 1인가구는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약 50만 가구에서 98만 가구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으며, 부부만 사는 가구는 약 20만 가구, 한부모가구도 10만 가구가 늘어났다.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유형을 가족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난 이유다.



출처
통계청, KOSIS, 가구주의 연령/가구유
형별 추계가구_서울.

개인화 양상과 결혼/가족의 의미 변화

개인화와 만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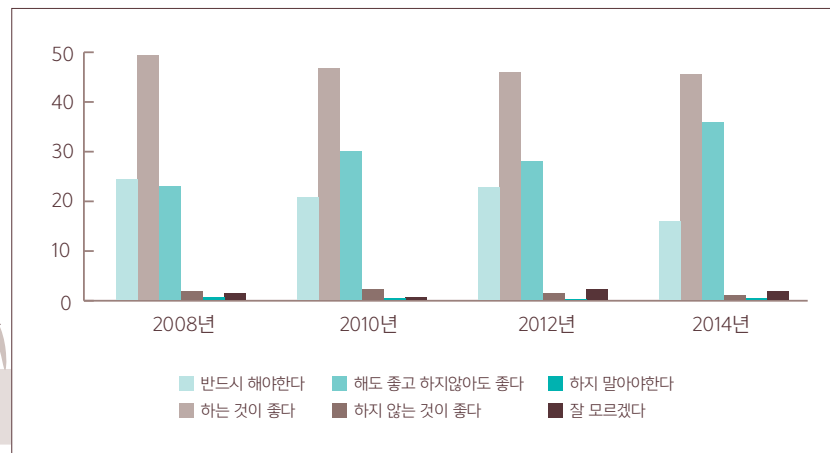
점점 혼자서 살아가는 생활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남자와 여자 모두 2-3년 더 늦게 결혼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남자의 초혼연령은 2015년 33세, 여자의 초혼연령도 평균 31살이 되었다.

초혼연령	남자	여자
2005년	31.2세	28.6세
2015년	33.0세	30.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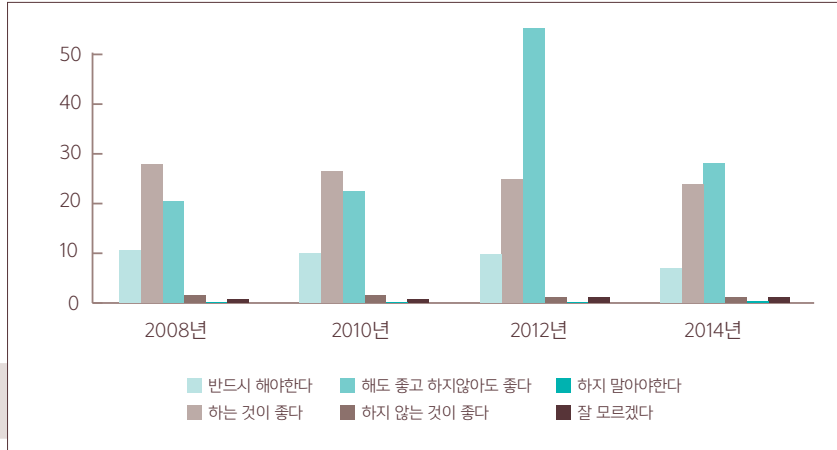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줄어들고 있으며, 점차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견해
(남성)



결혼에 대한 견해
(여성)



출처: 서울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사회조사」, 2년 단위 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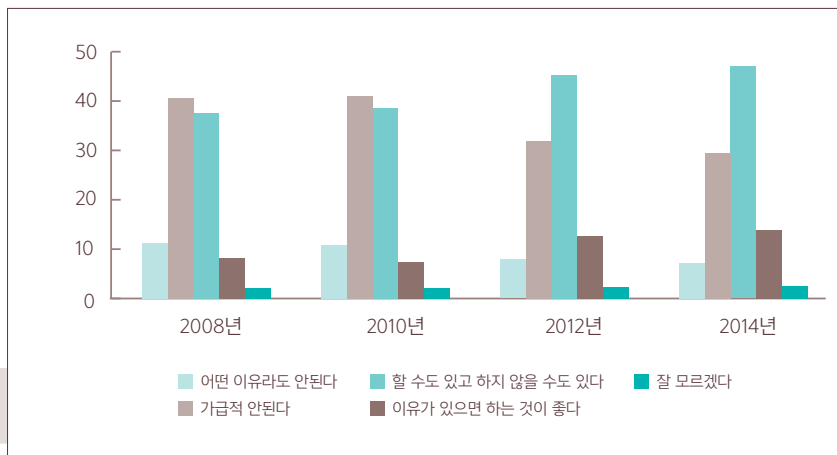
이혼의 증가, 황혼이혼의 증가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부모가구 중에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로 올수록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황혼이혼 건수가 6,201건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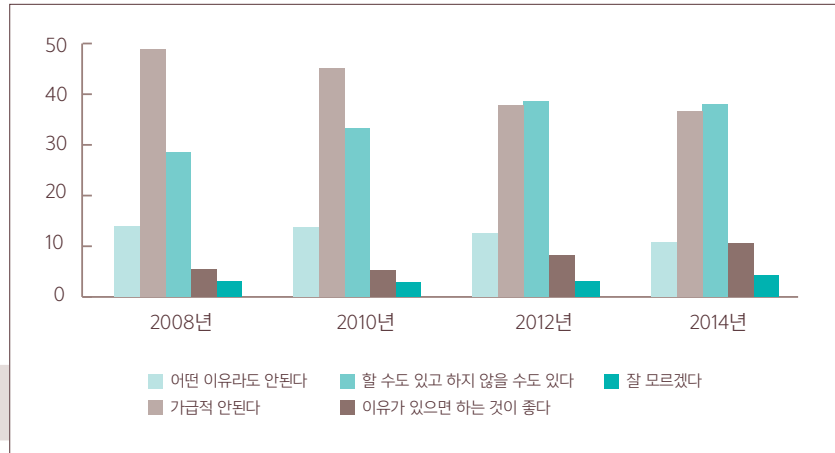
이혼에 대한 태도, 개방적 변화

이혼에 대한 견해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혹은 '가급적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혼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이 강했다. 가족관계나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다.

이혼에 대한 견해
(여성)



이혼에 대한 견해
(남성)



출처: KOSIS, 행정구역(시도)/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인구-서울시.

노부모 부양책임 약화와 국가 책임 인식 강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60.7%(2006년)에서 31.2%(2014년)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자녀와 정부 또는 사회 공동책임은 29.1%에서 48.2%로 높아졌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7.7%에서 16.4%로 증가하였다. 향후 노후 생활유지도 중요한 가족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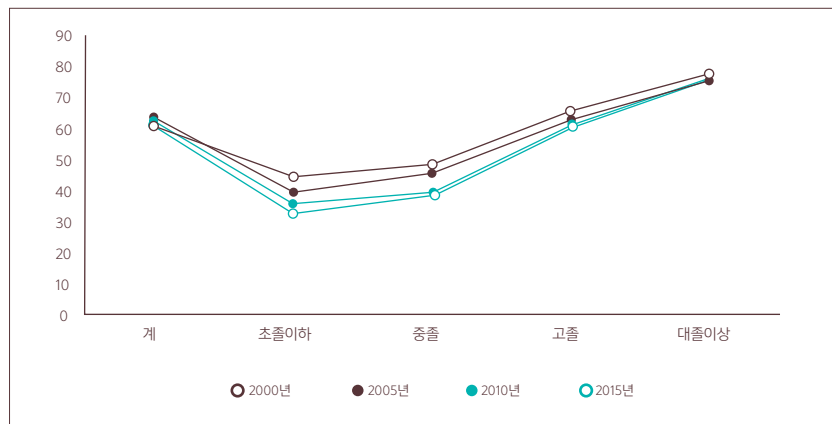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와 일가족양립의 요구 증대

전국 대비 고등교육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 대비 약간 높지만 거의 유사한 양상이다. 그러나 서울 여성 중 대학교를 마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졸이나 중졸이하에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참가율(서울특별시)

출처
KOSIS, 행정구역(시도)/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인구-서울시.



맞벌이 가구 증가와 여성의 집안일 부담 과다

서울시는 맞벌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 현재 839만 가구가 맞벌이로 일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달한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문화로 집안일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77분으로 남성의 5.9배, 자녀돌봄도 93분으로 남성의 4.6배에 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집안일이 제대로 분담되지 않아서 여성의 남성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높다.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일가족양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더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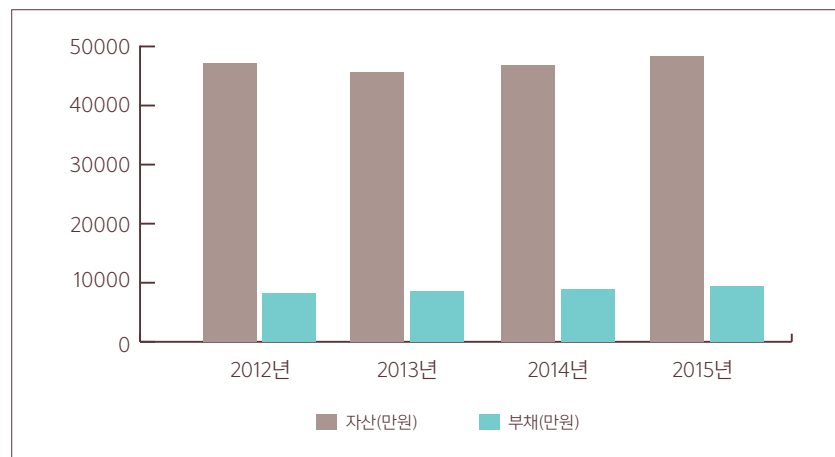
구분	가사노동시간 (가정관리와 가족돌보기 포함)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성	39분	1시간 1분	1시간 13분
여성	3시간 25분	3시간 37분	3시간 33분

불안정 위험에 놓인 가족들 증가

대다수 가족들이 불안한 가계

서울시 가구의 평균 부채액수가 상당히 높다. 주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인해 발생하였다.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2012년 8,263만원, 2013년 8,596만원, 2014년 8,924만원, 2015년 9,366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4년 사이 가구당 평균 천만 원 넘게 부채가 늘어났다. 전체 가계자산 중 약 20% 정도가 부채로 이루어져 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울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



한부모가족, 여러 위험 처해도 저소득층만 보호

서울시에도 한부모가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평균소득은 189.6만원으로 일반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430만원(「2014년 가계동향조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거상황을 보면 자가 21.2%, 전세 22.6%, 보증부 월세 26.4%, 가족이나 친지의 집에 무상 거주 15.2%로 상당히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음식 및 숙박 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자녀들을 돌보거나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부모가족은 빈곤층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액수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생활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불안정

서울시 국제결혼 건수는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5년 이후 총 누적건수는 8만 건이 넘는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이 많아졌으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가부장적 문화에 따라 다문화가족내 가정폭력이 69.1%로 일반 가족(53.8%)에 비해 높다.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 비중이 9.1%(2013년)로 다문화가족의 불안정성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요구된다.

2

서울시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

서울시 가족정책은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는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의 가치와 실현방식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가치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만 초점을 맞춘 방식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포괄하는 가족정책

서울시는 고령화·저출산, 혼인율 저하, 1인 가구 증가, 이혼, 재혼 등 가족을 둘러싸고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결혼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녀 출산이나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가족정책의 중심축으로 놓는 방식으로는 여러 유형의 가족들이 포괄되지 않는다. 가족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전통적 가족정책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가족정책은 부부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정책들이 상호 연계를 통해 포괄적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일반가족과 저소득층 가족 구분을 넘어서는 보편주의 가족정책

이제까지 가족정책은 소위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분리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일반가족과 저소득층 가족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층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저소득층 가족만을 위한 정책은 복지수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계층간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수혜 그룹도 낙인이나 차가운 사회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지양하고 모든 가족들이 포함되는 보편주의적 방식을 지향해가고자 한다.

가족간, 성별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가족정책

서울시에서는 가족정책이 주어져도 계층별로, 성별로, 가족형태별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점을 민감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가족정책은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거나, 가족 내 모든 가족구성원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아 왔다. 그러나 정책 혜택이 골고루 제공되려면 보다 촘촘한 정책설계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계층, 성별, 가족형

태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고려를 하고자 한다. 즉 서울시 가족정책은 일반적 권리에 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을 고민하고자 한다.

가족내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족정책

서울시는 개인의 권리나 인권을 중요한 의제로 삼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단위로서의 가족'만이 아니라 개별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가족정책을 지향한다. 즉 같은 가족내에도 부모-자녀, 남편-아내별로 인식과 욕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정부, 지자체만이 아니라 시민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족정책

가족정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서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으로 한정될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만일 가족정책이 주로 정부가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해되면, 정책 확대는 곧 재정 부담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이 능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정책을 확대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시민의 참여 유도, 다양한 관련 집단으로부터의 의견수렴과 조율, 자발적 지역주민 공동체 결성을 통해 가족정책 결정과 전개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쌍방향의 가족정책을 지향하고자 한다.

가족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일·쉼·삶이 있는 서울

이제껏 가족의 많은 문제들은 주로 가족을 통해서 해결되어 왔다. 아동양육, 노인부양 문제는 물론 경제적 궁핍도 가족이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더라도 주로 저소득층에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다. 대다수 가족은 고용시장 불안정 증대, 높은 주택 비용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산층 맞벌이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아도 늘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로 만나도 충분히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기본 생활은 유지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과 충분한 교류를 하지 못했다. 부정적 시선과 차별 등을 받는 등 관계적 빈곤에 놓여 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빈곤, 시간적 빈곤, 관계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관계적 여유를 가지는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모든 시민이 일하고, 쉬고, 돌보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다. 서울시 가족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서울시민이 계층, 성별,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쉼-삶-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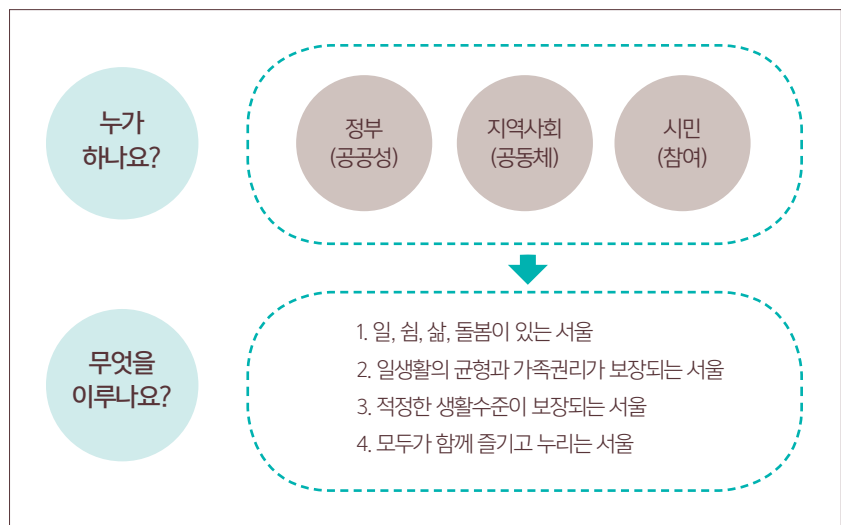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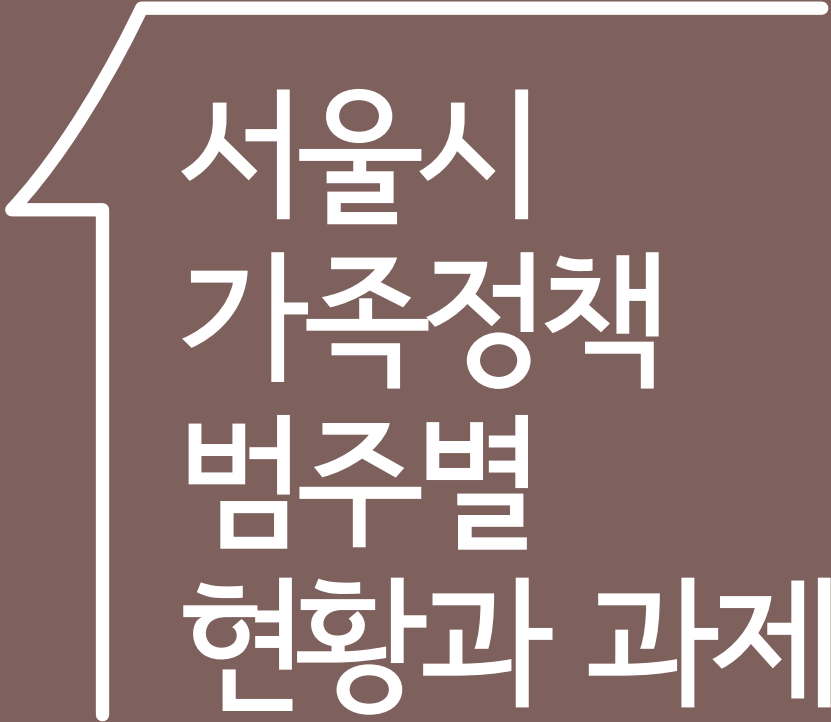
서울시 가족정책 실현방법

가족을 넘어 지역과 사회가 함께

서울시 가족정책은 근본적으로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 가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서울시 가족정책은 가족만 홀로 고군분투하는 방식이어서도 안 되며, 정부가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향식 전달방식도 아니어야 한다. 정부/지자체, 지역사회공동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생활의 균형과 가족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나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이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관계적 여유를 회복하는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지자체, 지역사회공동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의 균형과 가족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들을 찾아내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누리는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한다.

서울시 가족정책의 퍼즐 풀기





서울시
가족정책
범주별
현황과 과제

1

믿고
안심하는
돌봄이 있는
서울

서울시가 책임지는 돌봄

아이에 대한 보육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서울 시민이 많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가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돌봄을 위한 돌봄 기관과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상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긴급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치매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서울형데이케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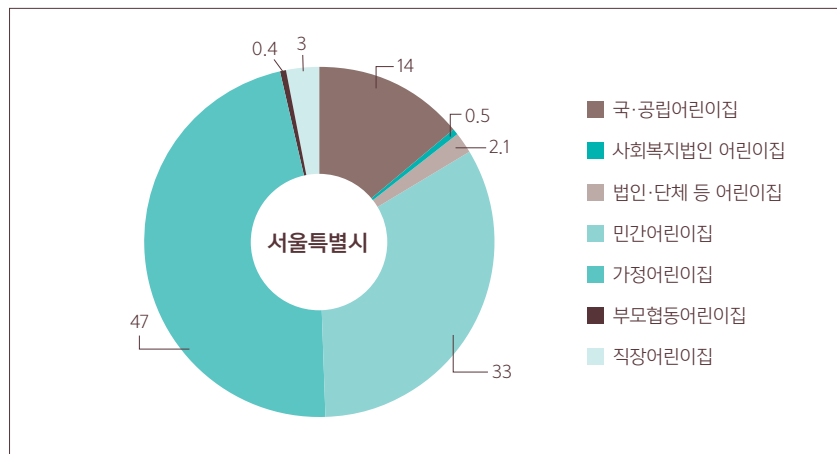
가. 믿을만한 보육과 돌봄이 필요한 서울 가족

▣ 서울시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수요자는 많지만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약 15%정도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934개이며 2015년~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1천 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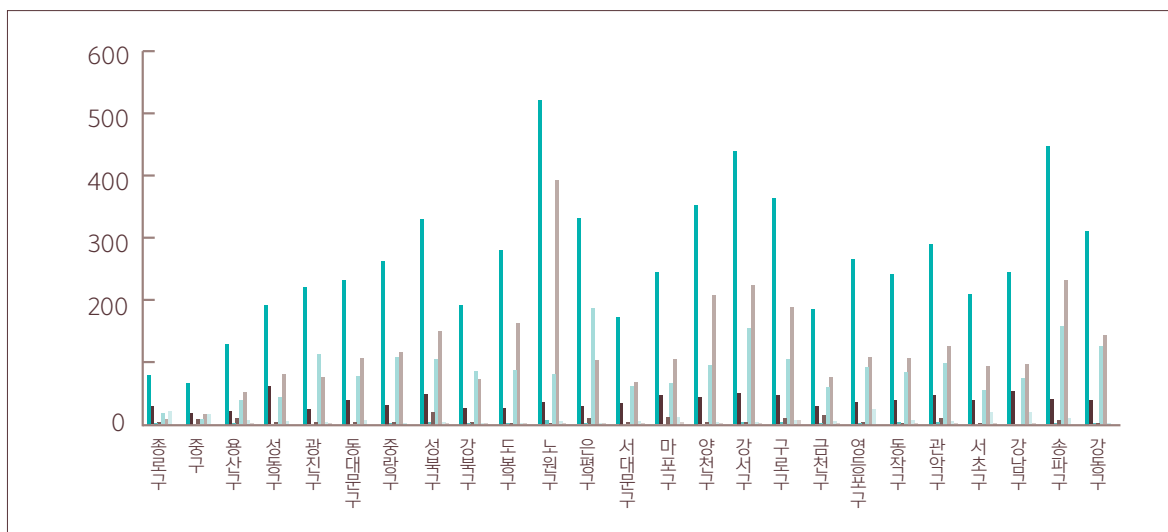
서울시 어린이집 유형별 비율

출처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portal/info/chart.do>



서울시 어린이집 경쟁률은 116대 1이다. 특히 국공립형 어린이집은 대기자만 경쟁률이 442대 1이다. 2016년 6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어린이집은 6,725개로 총 대기자수가 77만8,546명이다. 평균 경쟁률이 116대 1이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자치구는 서초구로 298대 1이다. 이어서 강남구(248대 1), 동작구(157대1), 중구(152대 1)의 순이다 (머니투데이, 2016/9/28).

어린이집 유형별로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15%를 차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016개소의 평균 경쟁률이 442대 1로 가장 높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878대 1로 가장 높고, 송파구(834대 1), 강남구(783대 1), 강동구(575대 1), 동작구(571대 1)순이다 (머니투데이, 2016/9/28).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져 있다.



자치구별 어린이집 유형 비율

출처
서울특별시청 서울통계자료실.
http://stat.seoul.go.kr/octagonweb/
jsp/WWS7/WWS7100.jsp?re_stc_
cd=71&re_lang=kor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은 현실

서울시 유치원은 국공립이 197곳, 사립이 691 곳으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의 3배가 넘는다(통계청,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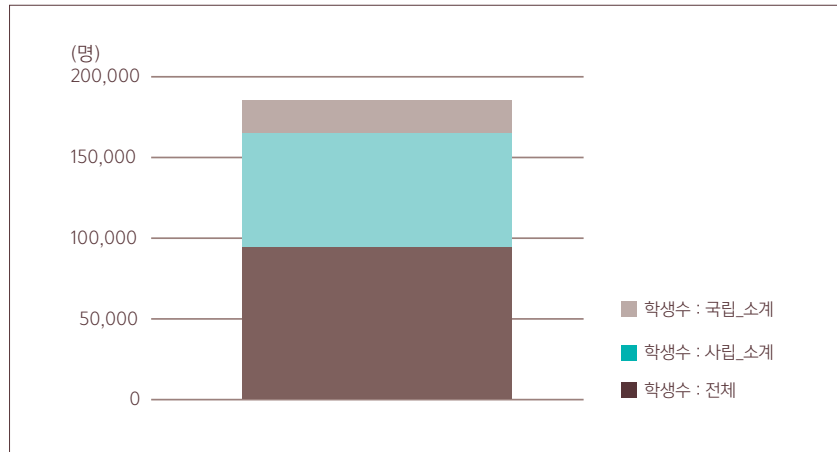
유치원 방과후(종일반)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반면 만족스럽지 않은 운영 현실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평일 평균 이용 시간은 약 7시간이다. 취업모 아이의 경우 7시간 38분이었고, 비취업모의 경우 6시간 23분으

로 큰 차이는 없다. 그 이유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종일반)의 하원 시간이 이르거나, 경쟁률이 높아 취업모 아이의 입소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 운행률이 30%여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헤럴드경제, 2012/05/21). 유치원 방과후(종일반) 이용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실제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부모 중 맞벌이여서 아이를 맡긴다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서울시 유치원 유형별
원아 수 현황**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2016 <http://kess.kedi.re.kr/index>



**▣ 초등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증가하여 운영하는 학교와 참여 학생 수가 점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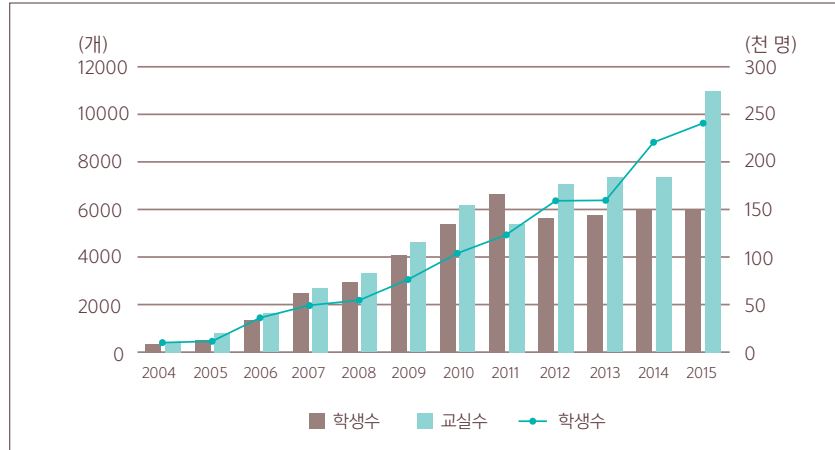
서울시 초등 돌봄 교실 이용의 경우, 2013년 참여율이 3.2%에서 2015년 7.6%로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초등 돌봄 교실이 기존에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에게만 제공되었는데 초 1~2학년 희망자 전원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교육부는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에 확대한다고 발표하여 더욱 증가할 추세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별 이용률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여야 한다. 서울시내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이 지역에 따라 최대 40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교실당 학생 수도 지역에 따라 5배 이상 차이가 난다(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2015).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정상화와 경쟁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 아동들이 공교육 기관 안에서 방과 후나 돌봄 교실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초등 돌봄교실 참여 규모 변화
(2004~201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6 <http://kess.kedi.re.kr/index>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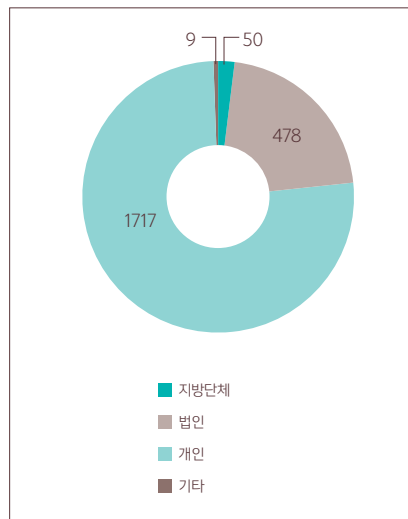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10명 중 한명은 노인이고, 노인 5명 중 한명이 독거노인이다.

현재 전국 노인 입소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설립 비율(2014년 기준)은 5.2%이다. 요양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연합뉴스, 2016/03/13).

서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인 서울요양원이 있으며, 서울형데이터케어센터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가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도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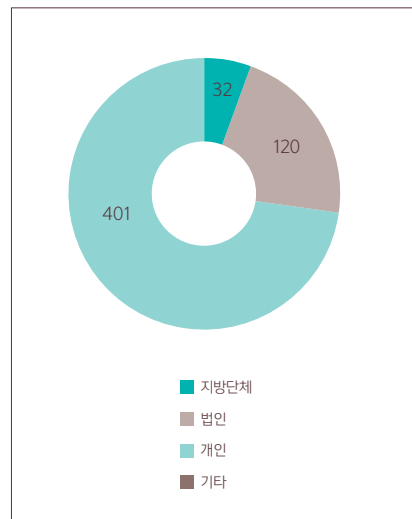
**운영주체별
재가 장기요양기관 수**

출처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운영주체별
시설 장기요양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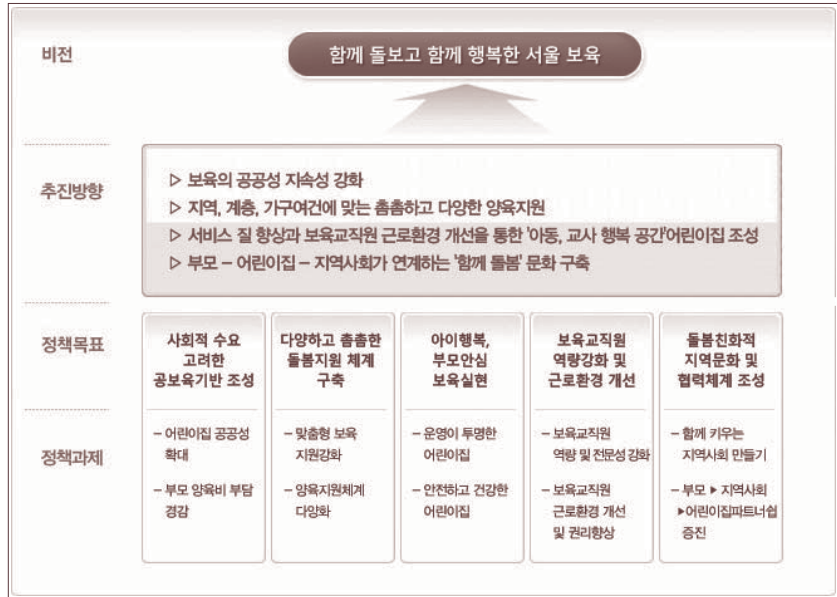
출처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나. 안심하고 아이와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서울

서울시 보육 추진체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oman.seoul.go.kr/archives/19729>



▣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공보육기반 조성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에 추가적으로 영유아, 아동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공보육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전국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약 5%인데 비해 서울시의 경우 약 15%에 이른다. 향후 전체 어린이집의 약 28%, 이용 아동 기준 약 50%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1천 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목표

출처: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정 4
 개년 계획(2014-2018)'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확충 목표	-	150개	300개	300개	250개
국공립어린이집 수 (누적)	934개	1,084개	1,384개	1,684개	1,934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균형 있게 배치

자치구별 형평성을 위해 동 기준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개도 없는 동이 13개이고, 1개 설치되어 있는 동은 93개이다.

- 2014년 대비 2015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이 2개 동 감소(15→13)
- 1개 설치 동은 29개 동 감소(122→93).
- 2011년 대비 2015년 현재 미설치 동은 24개 동 감소(37→13).

▣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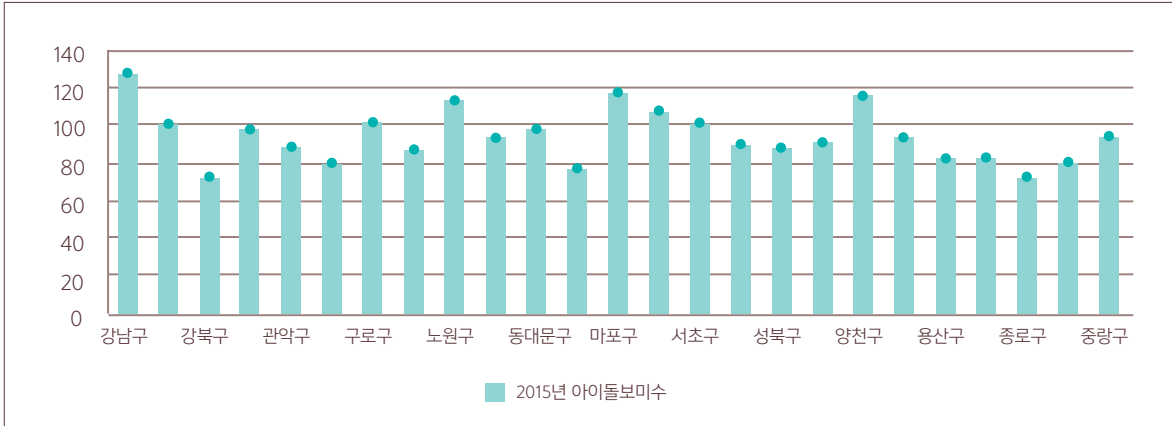
아이돌봄 신청
<https://www.idolbom.go.kr/home.go>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1:1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면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나 해당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 양육경험이 많은 중장년층 아이돌보미와 2013년 전국 최초로 양성한 '대학생 아이돌보미'가 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종일제는 0세아(3개월~12개월)를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관리 및 일반 돌봄을 제공하며 월 200시간까지는 100만원의 이용료 중 소득기준에 따라 40만원~ 70만원까지 지원한다.
- 시간제는 아동(3개월~만12세 이하)의 일시보육, 등·하원 돌봄, 학습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하며 시간당 5천원(심야, 주말 6천원)의 이용료 중 소득기준에 따라 1~4천원까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1명 증가 시 시간당 2,500원씩 증가한다.
- 서비스 이용신청 :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이용요금을 지원 신청하거나 해당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서비스와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서비스가 있다.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https://idolbom.go.kr/www/bizinfo/>
 webUrl.do?urlCd=cntrInfo&upperCenterNo=C0491

서울시는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보육 해결을 위해 2016년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를 시작(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긴급보육전담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를 2016년 9월 시범 시작하였다.

-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송파구에서 10월 시작하였다.
- 갑작스럽게 아이 맡겨야 할 때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첫 운영...어르신 일자리 연계 90명 양성, 7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
- ‘긴급보육 거점시설’ 11개소 운영...어린이집 이용 유무 상관없이 2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 ‘긴급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기존 성북구 1개→강동구, 성동구, 영등포구, 강서구에서 11월부터 시행. 총 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틈새·긴급보육 서비스 지원망 지속적으로 구축해 보육 사각지대 최소화” 한다.

긴급하게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2)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2514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강화(여성가족정책실, 2015)

지역아동센터(418개소), 방과후 아카데미(23개소)





I·SEOUL·U
내·내·서울

SEoul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을 찾으시나요?**

“서울시의 긴급보육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긴급 보육(돌봄) 거점시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확대)
<p>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60시간이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신체건강하고 육아 경험이 있는 60세이상 어르신들이 돌보드립니다.</p> <p>이용내용 동·하원동행, 긴급일시단기돌봄, 부모모임시 임시돌봄 등</p> <p>이용지역 성동,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영등포</p> <p>이용시간 7시~20시</p> <p>이용대상 6개월~9세(초2)자녀를 둔 부모</p> <p>이용료 시간당 7천원~8천원 (서비스내용 따라 이용료 차등)</p> <p>수행기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1588-9091</p>	<p>재해시간에 갑자기 일이 생겨 자녀를 맡겨야 할때 지역 내 긴급보육 거점시설로 지정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을 제공해드립니다.</p> <p>이용지역 광진, 서대문, 영등포 • 365열린어린이집(노원, 양천, 관악) • 야간시간제보육(중랑, 구로) ※ 준비 중 : 성동, 성북, 강북</p> <p>이용시간 평일 18시~22시</p> <p>이용대상 미취학 영유아(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미이용자 포함)</p> <p>이용료 시간당 3천원(시간연장보육 이용료)</p>	<p>갑작스런 용무가 발생했을 때 만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p> <p>이용지역 성북, 성동, 영등포, 강동, 강서</p> <p>이용시간 0시~24시</p> <p>신청시간 9시~18시</p> <p>이용료 1,625원~6,500원 시간당</p> <p>수행기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2514</p>
<p>이용안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772-9812</p>		
		

▣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보육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서울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위해 2015년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

- 보육교사 공적지원시스템 체계마련 및 운영
- 보육교직원 모집 후 사전시험, 교육하고, 평가를 통과한 교사의 경우 교사의 경력과 거

주지 등을 인력풀에 등록하여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인력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구인구직 정보제공

보육교직원 모집, 선발, 교육, 인력풀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채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보육교직원 콘텐츠 개발,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서울시 보육철학과 보육공공성의 이해, 보육정책의 이해, 인권 및 젠더 감수성, 교사의 윤리 및 책무, 현장중심의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맞춤 보육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활성화, 고충상담 및 처리,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권리 구제를 향상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제공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서울시가 책임지는 어르신·장애인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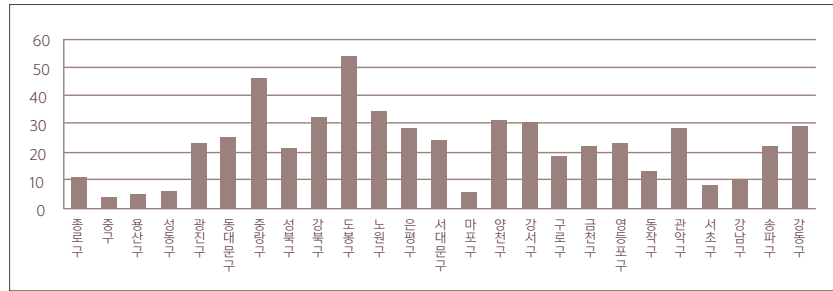
서울시는 치매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서울형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노인을 돌보는 주·야간 보호시설로 현재 187곳이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맞춤케어, 안심케어, 응급상황 등을 관리해주고 있다. 298개 데이케어센터 중 187개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의 환경 개선, 대체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한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환경과 같은 기본요건 외에,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의 지표를 통과해야 한다. 인증은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형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형데이케어센터 블로그(<http://blog.seoul.go.kr/2207666778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인들을 위한 돌봄 지원정책에는 노인돌봄지원, 독거노인지원, 종사자 지원이 있다.

서울시 장기요양 시설 수

2015년 서울시 장기요양시설

출처
통계청, KOSIS, 시군구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수, 2015



2016년 돌봄 성과와 평가

출처
함께서울포럼, 2016.
서울시정의 성과와 시민 평가

- 어린이집 확충: 150개('15)→300개('16)
 - 어린이집 만족도: 4.28('15)
 - 입소대기시간: 18.8개월(부모예상)→9.7개월(실제입소)
 - 공공노인요양시설 등 확충
 - 노인 돌봄휴가제 실시 등
- ⇒ 시민들이 느끼는 출산·보육 환경: 불안(79.7%)>안심(2.6%)

2016년 서울 시장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향후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분야이다.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보육

◎ 질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 아동이 여전히 많다. 아동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하는 대기아동의 대기 기간을 축소하고, 보육 기관 입소를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들기

신뢰할만한 보육 환경을 위해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하고 보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의 입장, 부모의 입장, 교사의 입장을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 및 아동과 함께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과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검증 절차로서 사전지문등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 내 보육 관련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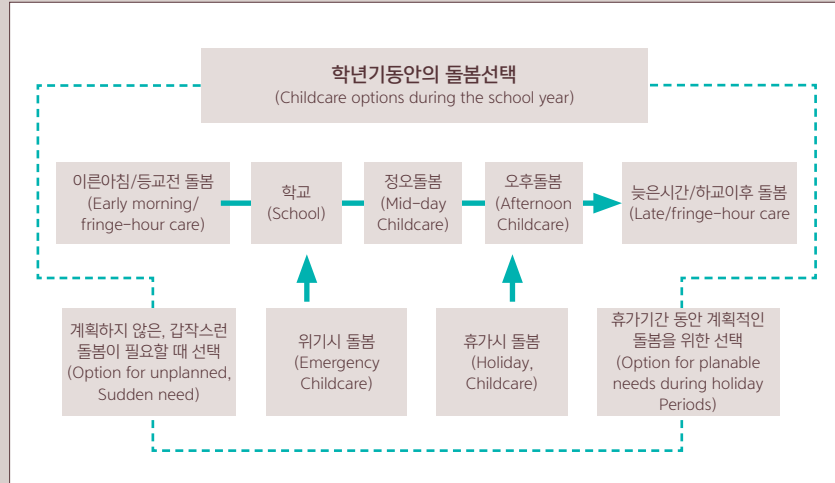
◎ 아동의 욕구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보육 제공

•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거치게 되는 유치원,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방학, 휴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돌봄 자원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래 베를린 사례는 학령기아이를 둔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독일의 돌봄 지원 시스템은 사회보험과 연동하여 작동하고 있다. 방학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돌봄 자원과 정보를 상세히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서울시는 영유아 아동 보육 수요를 파악하고, 부모의 상황과 조건 및 긴급성에 기초한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맞춤형보육에는 기관보육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례
베를린 돌봄 체인

출처
베를린 보고서



• 긴급 또는 일시 보육의 경우 단순한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예컨대, 아이가 “돌봄제공자”의 거리감을 좁히는 방안(특히 분리불안을 느끼는 시기의 아이나 낯가림이 있는 아이일수록)을 고려해야 한다. 긴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제공자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긴급보육 환경이 필요하다.

• 수요에 맞는 시설 확충 예컨대, 영아보육시설 수요 조사에 기초한 확충이 필요하다.

•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종일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81%ED%98%B8%282012%EB%85%842%EC%9B%9420%EC%9D%BC%29_0.pdf

일본 요코하마: ‘영유아 보육시설 대기인원 제로’

일본 요코하마시 어린이청소년국 긴급보육대책과는 대기인원 제로 달성을 위해 하드웨어적인 보육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각 가정 상황과 아이의 연령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이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힘든 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를 버스도 데려다 주는 ‘보육 스테이션’을 정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다. 서비스에는 요코하마 보육실(0~2세), 가정 보육(0~2세), 유치원 연장보육(3~5세), 일시 보육(0~5세)이 있다. 유치원 연장보육 기관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도 실시한다. 일시 보육은 보호자가 부분취업이나 질병, 긴급용무가 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 직장어린이집 설립 미이행률은 약 25%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여전히 많다. 서울시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222개이다.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 어린이집, <http://iseoul.seoul.go.kr/portal/info/preSchoolList.do>)

직장보육시설 컨소시움 확대

201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받은 기업의 76%가 대규모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비용이나 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직장보육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설치 비용이 낮은 상태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컨소시움형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확대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해 컨소시움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자체가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자부담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협업모델이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사업주가 부담금 지원(10~20%)을 하는 형태로 추진하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마노아구로 어린이집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약 38%였다.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두 곳이 있었으나 많은 보육수요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현재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전국의 52곳이 설립 허가를 받았고 25개가 운영 중이다. 이런 형태의 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처
KTV국민방송, 2016/08/23,
[http://www.ktv.go.kr/content/
view?content_id=525934](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25934)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이용 사례

인터뷰> 윤혜진 / 연구원 복직할 때도 정말 부담 없이 어린이집이 직장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육아 휴직 중에 복직까지 문제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6살 두 아이의 아빠 강기찬 씨 요즘 출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직장 옆에 공동 어린이 집이 생긴 덕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출근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맞벌이를 하는 아내의 걱정도 덜었습니다.

포괄적
돌봄
안전망

인터뷰> 강기찬 / 경기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아내도 안심이 많이 되죠. 애들 옆에 애기 아빠가 있고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안정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이 있고요. 그런 만큼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내도 야근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보다는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지난 3월 문을 연 경기테크노파크 공동 어린이집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근로자 기업 모두가 반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족내 노인·장애인·질환자를 위한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가족 내 노인·장애인·질환자를 위한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여성을 위한 안전망 서비스로 서울시에서는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최근 서울시 1인 가구 증가로 이런 안전망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성안심특별시

사람안전망(안심귀가스카우트, 마을파수관, 지킴이집, 여성안전마을)
환경안전망(CPTED, 홍보범서비스, 여성안심택배, 골목길 조명개선)
교통안전망(안심귀가버스, 여성안심택시, 안전지하철) 등

◎돌봄통합지원센터 설립

가족 내 가족 구성을 위한 돌봄 지원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돌봄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기존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원스톱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래 독일 베를린 ‘노인간병지원상담소’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담소를 노인뿐만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으로 포괄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16%ED%98%B8%282009%EB%85%84%206%EC%9B%94%201%EC%9D%BC%29_0.pdf

독일 베를린: 노인간병지원상담소

베를린시는 2009년 24곳에 노인간병지원상담소를 개소하였다. 각 지역구마다 2개씩 2011년까지 36개를 개소하기로 하고 시작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에게 상담 및 요청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를린시가 160만 유로(약 27억)를 지원하고 국가의료보험 및 요양보험공단이 나머지를 지원한다. 노인간병지원상담소는 교회나 사회복지사단체와 협력하며 제공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이다.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돌봄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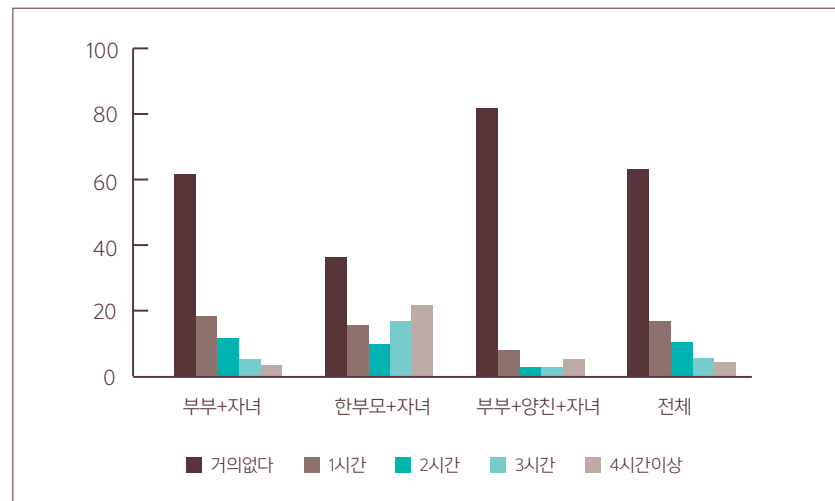
맞벌이 증가로 보호자 없이 혼자 방과 후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홀로 시간을 보내는 서울 시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고독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보육 서비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우리 동네 보육반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및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도 확장해 왔다.

가.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울 가족

▣ 사회적 돌봄 부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거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동이 증가

초등학생 37%가 평균 한 시간 이상 홀로 지낸다. 특히 장시간(4시간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동은 한부모 자녀이다.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 후 홀로 보내는 시간



초등학생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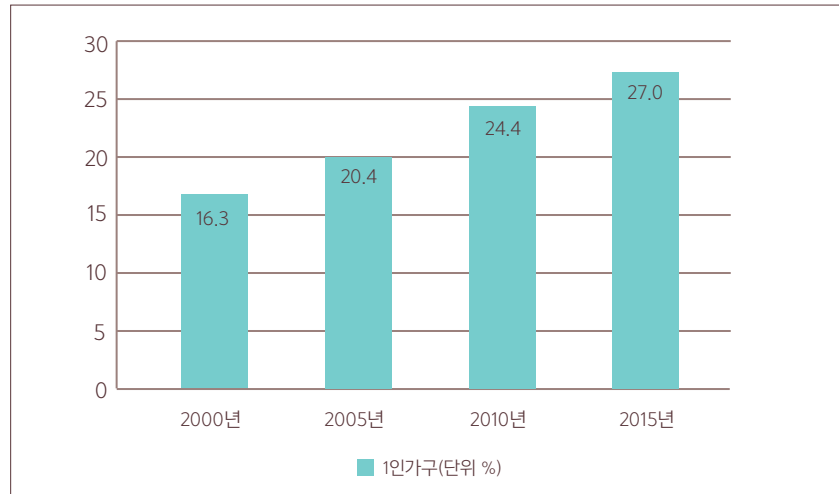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6 재인용, 여성가족부, 2016
2015 가족실태
<http://kess.kedi.re.kr/index>

▣ 서울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지역 내 상호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독거 노인을 비롯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추이

출처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건강 15년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통
계, 2015년 한눈에 보는 서울,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가구, 주택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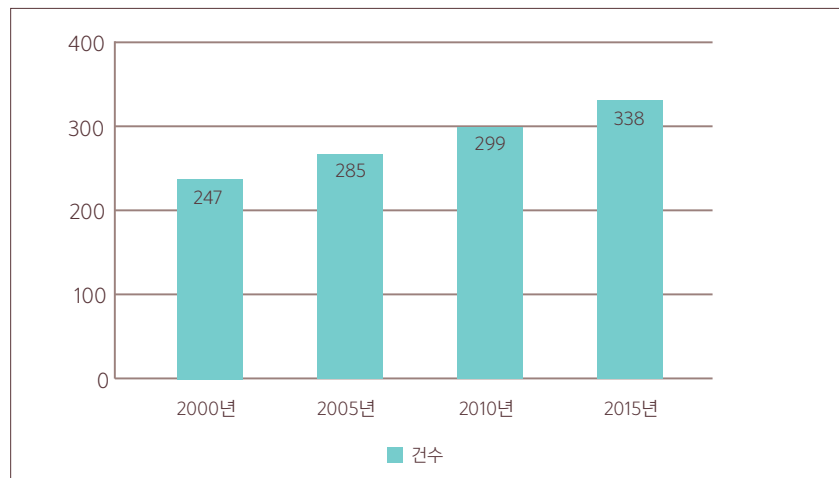
서울시 독거 노인

출처
서울통계정보시스템 2010년 노인복지
과, 2014년 어르신복지과.
[http://stat.seoul.go.kr/
octagonweb/jsp/WWS7/
WWS7100.jsp?re_stc_cd=51&re_
lang=kor](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7100.jsp?re_stc_cd=51&re_lang=kor)

자치구	계	남자	여자
서울시	273,190	83,383	189,807

서울시 고독사

출처
서울경제 '서울 저소득 독거 노인에 '안심
폰' 지급...고독사 막는다', 2016/08/04.
[http://www.sedaily.com/
NewsView/1L00ES4YVW](http://www.sedaily.com/NewsView/1L00ES4YVW)



나. 마을과 공동체가 살아있는 서울

▣ 돌봄 친화적 지역문화 및 협력체계 구성: “우리동네 보육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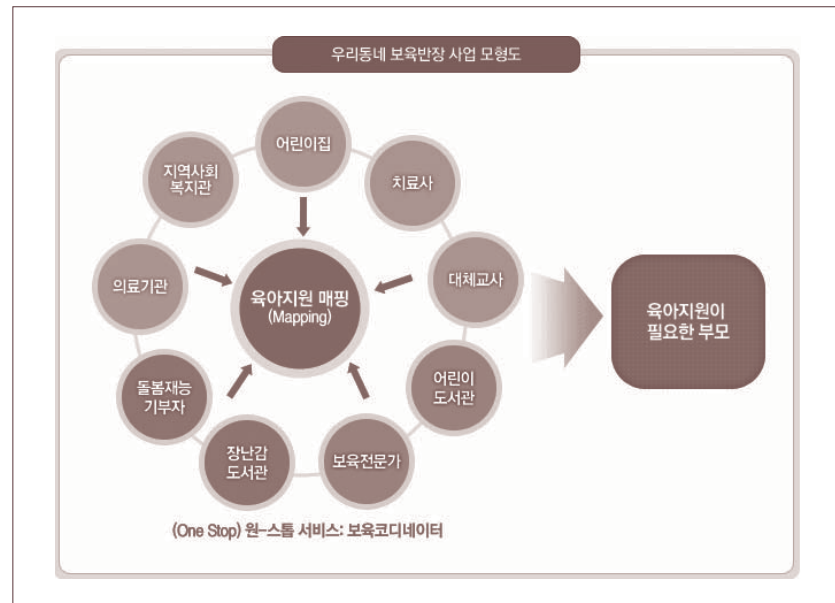
돌봄 친화적인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촘촘한 보육망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공보육 서비스만으로 충족되지 않은 돌봄 욕구를 보완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원한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도우미, 돌봄재능기부자, 장남감도서관, 보육전문가, 어린이도서관을 연계하여 부모들의 육아를 지원한다.

또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전문교사, 육아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을 관리하여 양육자에게 원스톱(one-stop)으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한다

우리동네보육반장 모형

출처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http://iseoul.seoul.go.kr/portal/boyukChief/boyukChiefInfo.do>



서울시 보육반장은 현재 구마다 3~7명 정도이다. 서초구와 노원구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중랑구가 3명으로 가장 적다.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portal/boyukChief/boyukChiefStat.do>

서울시 지역별 보육반장 분포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보육반장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하는 기간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보육교사 3급이상,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이다. 보육반장 지원 서비스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상담도 가능 하다.



<http://iseoul.seoul.go.kr/portal/boyukChief/boyukChiefInfo.do>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2년의 성과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2년 부모자조모임 250개 출범', 2015/05/31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3355&act=VIEW&boardId=23355

- 부모자조모임 250개
- 육아 품앗이, 이유식만들기, 다문화가정 등 모임 조직·활성화
- 일시 보육, 육아스트레스 해소 창구 역할
- '보육반상회' 월·분기별 열어 지역내 육아문제 주민·유관기관과 협력해 해결
- 다문화, 한부모, 조부모 등 취약가정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맞춤 지원
- 현재(2015년) 132명이 활발하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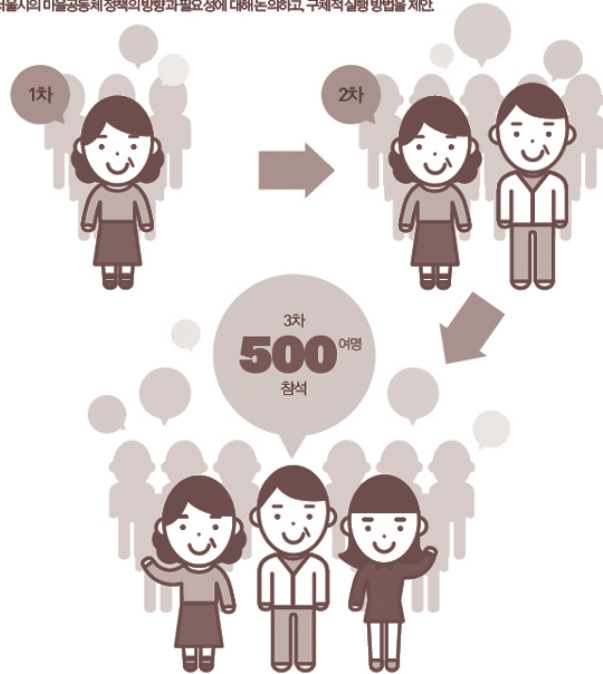
▣ 함께 살기 위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확대: 마을공동체 및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 확장

서울시는 도시 속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및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센터 설립 과정 - 마을공동체를 꿈꾸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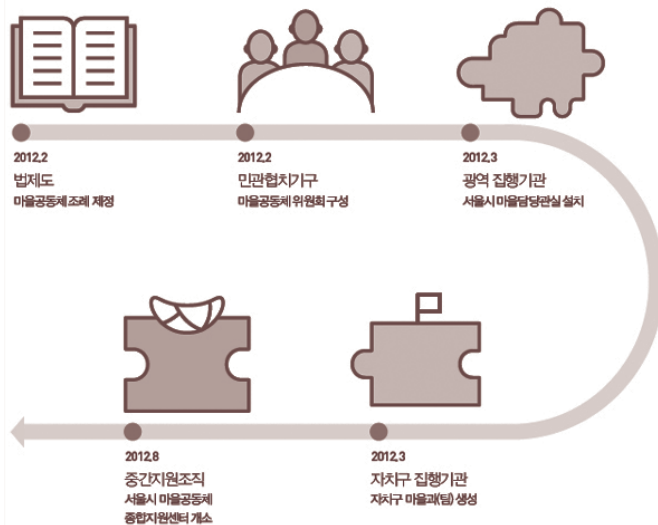
●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풀뿌리시민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담회, 총 3회 동안 약 500여명이 참석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안



● 행정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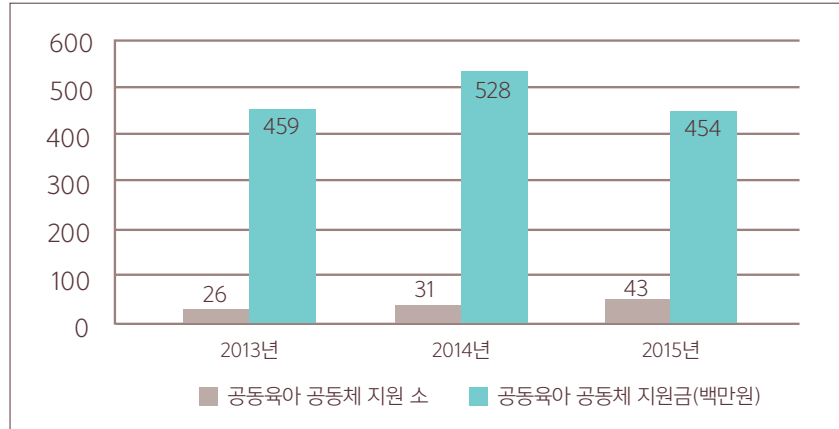
법제도, 민관협력기구 구성, 광역-자치구 집행기관 신설 등
 마을공동체를 위한 기틀 마련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현황

년도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소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금 (백만원)
2013년	26	459
2014년	31	528
2015년	43	454

지난 5년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12년부터 '15년)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지역밀착형 마을공동체 지원 본격화', 2016/07/29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8225&act=VIEW&boardId=28225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주민 31,974명이 마을사업을 상담 받고, 5,53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한 시민은 72,080명이 됐다. 모두 129,884명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자치구에서 펼쳐진 교육과 상담, 지원 사업 등을 합하면 마을사업 참여자는 약 20만여 명이다.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마을에 오래 살고 싶다'는 정주성이 마을사업 참여자는 88.4%였던 반면 서울시 전체 조사에서 59.4%(2016 서울서비스 도시정책지표조사)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성도 87.6%로 집계돼 전체 국민 대상의 통계청 조사 80.%(‘2015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 OECD조사(2016 Better Life Index) 75.8%에 비해 크게 앞섰다.

출처

안세정. 품앗이 육아로 배운 마을공동체의 소중함. 웹진 6호. 2013/11/06에서 요약 발췌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webzin/webzin_read.asp?idx=44&cover_idx=&corner_idx=&searchVal=품앗이&pageno=1

‘품앗이 육아’ 사례

‘은평 품앗이 육아’의 시작은 2012년 6월, 은평구 꿈나무 도서관에서 열린 ‘북스타트’모임이었다.

“제가 평소 공동육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첫째 취준을 놓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느라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우연히 품앗이 육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동을 했던

“터라, 무언가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결심이 섰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14명의 엄마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서로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품앗이 동화책 읽어주기’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어느 날, 은평구 소식지를 보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해준다는 뉴스를 봤죠. 함께 활동하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3인 이상 된다면 우리도 해볼까 라고 농담처럼 그랬는데, 다들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원했고 그만 ‘덜컥’ 된 거죠(웃음)”

말은 쉽지만, 아이를 들쳐 업고 처음 써보는 낯선 양식의 서류를 채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었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서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그를 대표로 하는 ‘은평 품앗이 육아’라는 단체가 탄생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뽑혀 3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왔다. 아기 엄마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복지관 2층 강당만을 아이들을 위해 제공받았지만, 이들의 꾸준한 활동을 지켜봐 온 복지관의 배려로 올 6월에는 5층에 아예 전용공간까지 얻게 됐다. 이름하여 ‘육아사랑방’. 아이들만이 아니라, 엄마들이 수시로 찾아와 수다 떨고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평일에도 늘 개방하고 있다. 공간이 생기니 프로그램 역시 쉽게 만들어졌다. 글쓰기와 독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타 레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주민 3인 이상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 지원을 할 수 있다.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support/introduce.asp>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사업 활성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지원을 확대해 왔다. 2010년 시범사업 이후 최근까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 품앗이 이용 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 : 시범사업(관악구)
 2012 : 3개소 운영(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2013 : 5개소 운영(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2015 : 9개소 운영(기존 5개소, 도봉, 노원, 영등포, 서초구 추가)
 2016 : 12개 사업(노원, 금천, 성북, 은평, 서대문, 강북, 관악)
 2016 : 서울시 센터 남성돌봄사업



2016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시민제안공모 사업을 통해 12개 자치구에서 21개 사업이 신청하여 현재 시민주도형 가족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했다. 내용은 6개 각 분야(가족문화부분 전문가, 아버지회 및 교육전문가, 공동육아 관련 전문가 등)로 선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No	분야	프로그램명	자치구	내용
1	가족과의 소통	췌! 소곤소곤 역할놀이	노원구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연극놀이
2		문백초 학생기자단 (생생기자체험)	금천구	아버지회 참여 아버지들의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들의 직업을 체험한뒤, 경험에 대해 신문발행
3		W가족마술단	성북구	가족이 함께하는 마술단 활동을 통해 가족소통 향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가족마술단 작은 공연 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실천
4	아버지회	아버지회 '마을극단-검바우'	은평구	기초 연기 교육을 통해 마을 아버지들의 극단 창단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높이고, 마을 배우로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예비 단원들이 주체적으로 마을 아버지 극단 창단을 준비
5	돌봄공간	공동육아 함께 자라는 아이들	성북구	3-5세 자녀들을 둔 동네 엄마들이 뭉쳐 공동육아를 통해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

No	분야	프로그램명	자치구	내용
6	가족봉사단 활성화	금나래모듬가족봉사단 반찬나눔	금천구	한부모가정 및 위기다문화가정에 반찬나눔봉사를 통해 지역주 민간 돌봄을 실천
7		가족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마음모아아버지자조모임	마포구	체계적인 아버지 모임진행을 통해 봉사단 내 아버지들의 역할 정립 및 소속감 증진으로 봉사단 활성화 도모 : 독거어르신 밀 반찬 지원방문
8		가족봉사단과 함께 행복한 마음과 마음유익하는 '행복산 타출동!'	서대문	찾아가는 이웃 나눔 실천을 위해 지역내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 하여 정서적지지 및 물품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 나기에 도움을 줌
9	가족프로그램	어울려더울려 가족사랑 보드게임	금천구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통찰한 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경험을 함
10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금천구	아빠와 자녀가 함께 천문대방문, 골프배우기, 캠핑을 통해 소 통과 공감의 장을 열기
11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역사 바로알기	강북구	강북문화 해설사를 통해 우리지역에 존재하는 근현대사의 명 소 및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탐방
12		마을을 통해 우리가족 알아보기	관악구	아이들이 연극과 그림을 통해 가족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과 부모와 함께 서로를 마주보고 이해하는 과정 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찾아본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등에 참여 하려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공고를 보고 참여할 수 있다. 다음 아래는 2016년 9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이다.

연 번	자치구	장소	운영시작 시기	주소
1	관악구	성현동 자치회관 (봉현작은도서관)	2011. 5월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55-7 성현동자치회관 1층
2		낙성대동 주민센터 4층	2013. 5월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3		남파 김삼준 문화복지 기념관	2015. 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 3층

연 번	자치구	장소	운영시작 시기	주소
6	동작구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011. 4월	동작구 사당2동 1136-1번지
7		건가센터	2015. 3월	동작구 사당2동 1136-1번지
8		동작도서관	2014. 3월	동작구 장승배기동 94, 울특별시립 동작도서관(어린이실)
9		본동 작은도서관	2014. 5월	동작구 노량진동 32길 10, 본동 작은도서관 (노량진1동 주민센터 출장소)
10		동작상도국주 도서관	2014. 4월	매봉로 37, 동작상도국주 도서관
11		대방어린이도서관	2015. 3월	동작구 대방동길 55 대방어린이도서관
12		자원봉사센터	2015. 9월	동작구 만양로3길 14 동작자원봉사센터
13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016. 1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552 도봉구민회관 2층
14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016. 7월	도봉구 노해로69길 151(창동) 3층
15	서초구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015. 3.10	사평대로 205 파미에스테이션 2층
16	강남구	건가센터	2011. 2월	강남구 개포로 617-8,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7	동대문	건가센터	2009. 9월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4층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8	서대문	홍제 1동 자치회관	2013. 9월	서대문구 홍제동 85-1 자치회관 2층
19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2014. 12월	노원구 중계로 181 2층
20	강서구	강서구 건가센터	2013. 3월	강서구 강서로5길 50
21	마포구	커뮤니티센터	2013. 10월	서울 마포구 동교로41길 36(연남동)
22		성산1동 주민센터 1층	2015. 3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15 (성산 동) 성산1동주민센터 1층

**▣ 사회적 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확대:
“카라박”프로젝트(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확대)**

이탈리아 볼로냐 ‘카라박(KARABAK)프로젝트’ 는 민-관 연대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요자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볼로냐 시정부에서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건설비용은 협동조합이 공동 부담한다. 협동조합에서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끝나면 소유권을 시로 이전한다. 서울시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카라박프로젝트를 모델로 “서울형카라박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서울형카라박프로젝트: 데이케어센터의 10%를 지역 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위탁해 18년까지 1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뉴시스, 2015/03/05)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지역주민 돌봄공동체 강화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EC%A0%9C381%ED%98%B8.pdf>

◎돌봄지킴이 우리동네 보육반장 조직망 확대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보육 관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반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육 지원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경 2km 내외에 보육반장이 1명씩 있을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시적인 육아 지원 이외에도 간헐적인 육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아이 돌봄만 담당했던 보육반장이 노인, 장애인, 1인가구, 한부모 자녀 등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마을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한 일본 오사카시 사례이다.

오사카시: ‘스마트 에이징 시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와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하고 있다. 이에 오사카시는 지역 포괄 케어형 마을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에이징 시티’ 정책을 시작하였다. 오사카시는 고령자나 의료약자를 위한 ‘마을 카페’나 ‘마을양호실’등을 운영한다. 또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간호나 돌봄 등의 서비스를 고령자나 의료약자에게 제공한다.

◎지역주민이 함께 돌보는 열린 공간 확대

지역 주민 생활권 안 열린 공간에서 상호 돌봄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주민이 함께 돌보는 보육안전망과 여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좋은 예로 어린이 도서관, 열린 공연 공간 등이 있다.

미국 뉴욕: '방과 후 공원 프로그램'

뉴욕시는 2009년부터 시 공원 및 여가국 주관으로 '방과 후 공원프로그램'을 제 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해당지역 공원이나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만 6~13세 아동이 무료로 오락 및 체육 활동을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질의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 고, 지역 내 유대감을 느끼고, 지성과 감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이탈리아 볼로냐 사회적협동조합공동육아처럼 시에서 공간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협동 조합 형태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관 컨소시엄 형태로 운 영할 수 있다.

2

일 · 쉼 · 삶이 있는
서울

생활시간 빈곤에서 벗어나기

너무 바빠서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가족이 함께 밥을 먹거나 이야기 하는 등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시간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서먹하고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모든 서울 시민이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회복하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 바쁜 삶에 쫓기는 서울 가족

▣ 한국,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는 최상위,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시간은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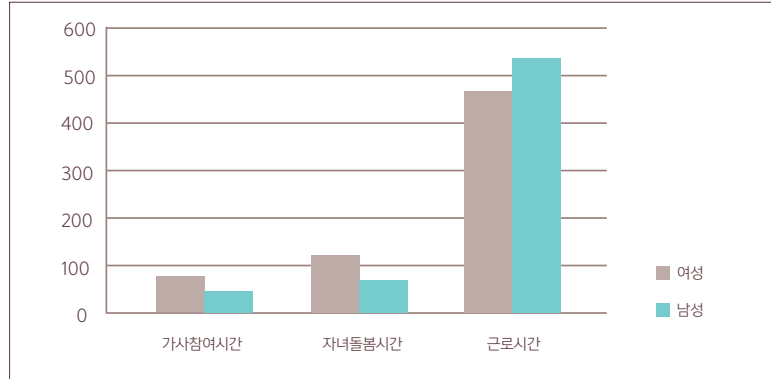
한국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시간이 부족하다. 한국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치인 1,766시간보다 훨씬 길다(OECD, 2016 고용동향). 서울시 근로시간을 보면, 2003년 49.2시간에서 2013년 43.2시간으로 10년 사이에 평균 근로시간이 6시간 정도 짧아지는데 그쳤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한국의 '일·삶 균형 지수'는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권에 속한다(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

▣ 여성은 유급·무급노동의 이중부담으로 남성보다 더 큰 시간빈곤을 경험

서울 가족 모두가 생활시간 빈곤을 경험하지만, 여성의 시간빈곤은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서울시 맞벌이 남편은 아내에 비해 자녀돌봄과 가사참여에 절반 정도 시간만 참여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부부가구 가사노동의 주책임은 여전히 아내 몫으로 남겨져 있다. 가사노동을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라는 의견이 62.8%로 가장 높고,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24.6%로 4가구 중 한 가구는 여성만 가정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a).

**2015 서울시 맞벌이 부부의
성별 시간사용(단위: 분)**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 생활시간 부족으로 인한 가족 소통기회 감소

서울에서 매일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비율은 61.8%로 전국 72.9% 보다 10% 이상 낮다. 맞벌이인 경우, 매끼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홑벌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놀거나 공부를 도와주는 시간은 고작 '3분'에 불과하다(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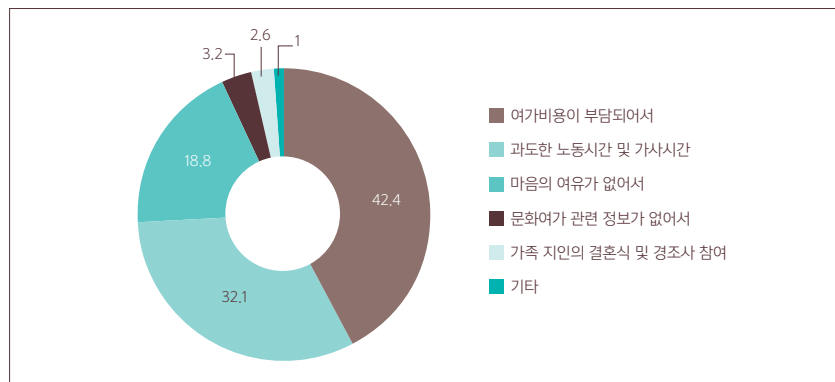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쉼·여가시간 감소와 삶의 질 저하

서울시민 절반가량(50.5%)은 여가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여가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여가비용 부담(42.4%)' 다음으로 '과도한 노동시간(32.1%)'이 높게 나타난다. 서울시민이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활동분야는 '여가·운동·취미'(34.9%), '휴식·수면'(16.7%), '학업·자기계발'(16.0%) 순으로 나타난다(서울연구원, 2015). 개인이 평가한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36개국(OECD 34개국+러시아, 브라질)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

**문화여가시간이
충분치 않은 이유
(단위: %)**

주: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015.8.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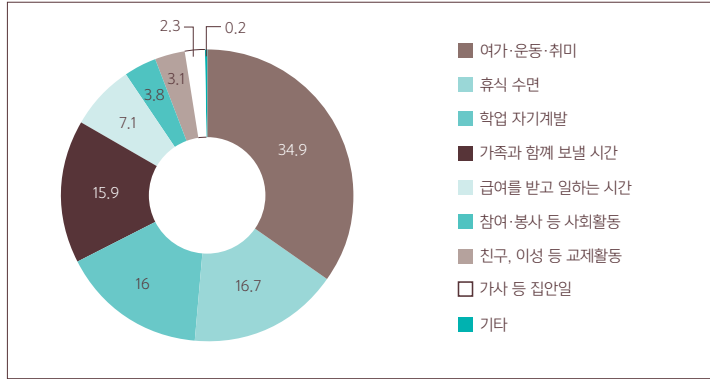
출처: 서울연구원(2015), 「민선6기 서울시정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분야
(단위: %)**

주: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015.8.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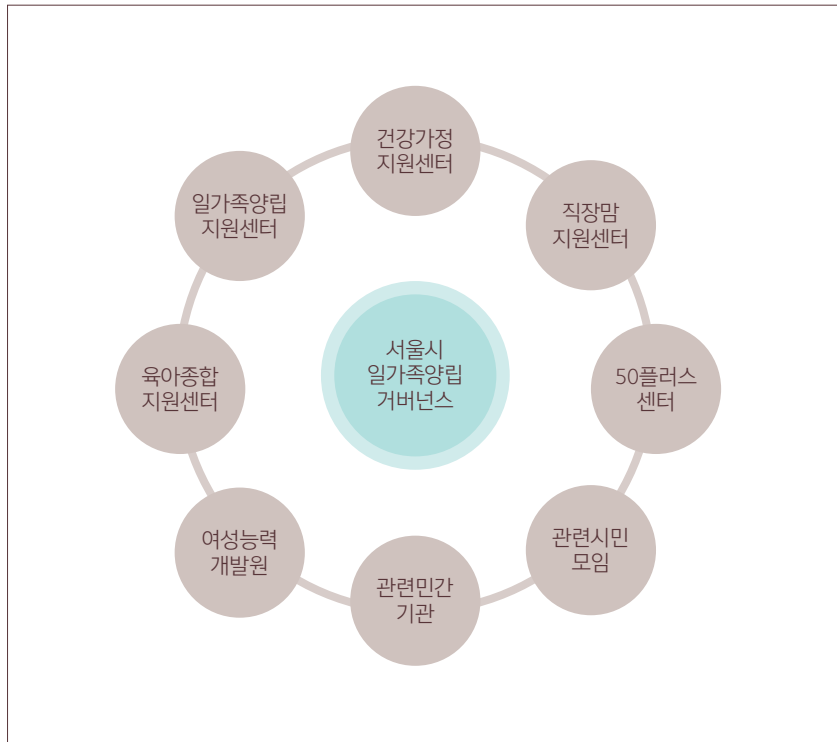
출처: 서울연구원(2015).
「민선6기 서울시정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

▣ 서울형 일·가족양립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는 일·가족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통합적인 일·가족양립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2015).



▣ 직장을 위한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지원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는 기업의 일·가족양립 직장문화를 진단 및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홍보를 통해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일·가족양립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2009년부터 컨설팅이 시작되었고, 특별히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 함께 해보는, 진단 및 컨설팅
- 함께 손잡고, 네트워크
- 함께 공부하는, 조사 및 연구
- 함께 공감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일가족양립 수준 진단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회사와 개인의 일가족양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수 있다.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



▣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족양립 지원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 소재의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직장으로 찾아가 기관의 구성원 특성과 인원수에 따라 맞춤형 아버지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버지 교육만 강조하는 기존 교육과 차별화해서 패밀리셰프, 아빠와 함께 하는 건축학교, 부자유친 골목답사 등 자녀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빠의 육아 고민 해소 및 전문가의 1:1 교육!

아빠육아교육과정

- 기간 : 8월 ~ 12월 중 1일 2시간 선택(주중, 주말 모두 가능, 맞춤형 운영)
- 장소 : 서울시 · 자치구센터, 가정, 직장, 카페 등 아빠가 원하는 장소
- 대상 : 서울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아빠 250명
- 진행기관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4개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금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 내용 : 육아 교육, 놀이, 대화법, 상담, 목욕법 등

아빠는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을까?

부자유친 골목답사 프로그램

- 기간 : 9월 10일 ~ 11월 26일 격주 (토)
- 장소 : 한양도성 성곽마을 6개소
(북정마을, 장수마을, 이화마을, 다산마을, 부암동, 행촌동)
- 대상 : 12개 자치구 아빠와 자녀 90~120가족(회별 20가족)
- 진행기관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유산연대
- 내용 :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한양도성 골목답사, 골목놀이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서울시는 가족내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고 가족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의 참여를 원하면 참여를 원한다면 서울 패밀리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oman.seoul.go.kr/archives/1728>

<http://seoulfamily.or.kr/>



패밀리셰프, 부자유친 골목답사, 아버지 육아교실

신청 및 문의는 02)318-8168에 하면 된다.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지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과 지역에서 일하는 부모가 스스로 만든 다양한 모임의 활동을 지원한다. 세 명 이상의 직장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page_id=17477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888 캠페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56년 'Eight Hour Day Movement'로 시작된 888 캠페인은 “8시간 쉬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즐기고”를 모토로 한다. 2014년부터 서울시는 서울 소재 기업(기관)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888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루 24 가운데 8시간은 일, 8시간은 휴식, 나머지 8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일에 할애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해오고 있다.

http://seoulworkfamilybalance.or.kr/campaign_view&idx=7



‘가정의 날’ 퇴근문화

2007년부터 서울시는 정시퇴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직원 대상으로 수요일마다 ‘가정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6년 8월29일 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확대해서 운영되고 있다. ‘가정의 날’에는 오후 6시 퇴근독려 방송, 오후 6시30분 소등, 오후 7시 PC 전원차단, 석식 미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일·생활 균형 사회 만들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일·생활균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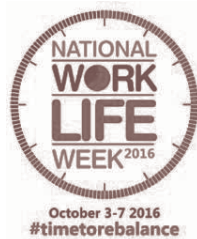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일하는 아빠가 자녀양육이나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일가족양립 균형의 당사자는 모든 일하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상 범위와 기능을 모성권리보호 뿐 아니라 모·부성권리보장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일·생활균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888캠페인 이외에도 지역, 대상, 주제를 더욱 확대해 새로운 캠페인을 마련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일하는 부모들(working families)'
단체 홈페이지
<http://www.workingfamilies.org.uk>

전국 일·생활 양립 주간



2016년 10월 3일 - 7일까지 영국의 '일하는 부모들' 단체는 전국 일·생활 양립 주간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업의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해당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고, 유연시간근무와 실천을 강조한다. 특히, 10월 5일 수요일 하루는 '정시 퇴근하기'를 실천한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정시퇴근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해왔는데, 앞으로 서울시 소재 전체 기업으로 캠페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 일·생활양립 주간"을 정하고, 기업, 직원, 시민 모두의 일가족양립 인식개선을 서울시 차원에서 도모할 수 있다.

취약가족을 위한 일·가족양립 지원

일반가족 이외에도 취약가족의 다양한 일·생활균형 요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장애아 가족 등이 생계를 위해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양육과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 멘토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서 부자가정의 이용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

출처
영국의 '일하는 부모들(working families)'
단체 홈페이지
<http://www.workingfamilies.org.uk>

'침몰하지 말고 손 흔들기(waving not drowning)'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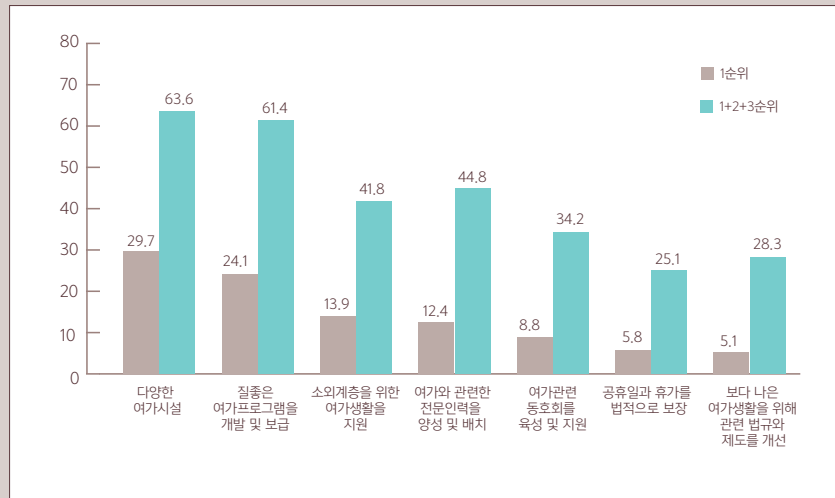
본 캠페인은 장애아동 부모와 유급노동과 돌봄책임을 함께 하고 싶은 성인 돌봄담당자(carer)들을 위한 캠페인이다. 캠페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 '조정 휴가(adjustment leave)' 기간에 대한 새로운 법적 권리
 - 조정휴가: 자녀가 장애 아동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위기기간 동안에 장애 아동 부모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휴가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 디자인에 대한 'flexible by default' 접근
 - 'flexible by default' 접근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유연근무 요구를 거절하기 전에 해당 업무가 유연근무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증명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양한 여가문화 확산

주5일 근무제(수업제) 이후의 생활변화로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45.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한 여가시간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나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서울 시내에 다양한 사람이 만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1순위, 복수응답,
사례수=10,034, 단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



서울시의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생활 지원

-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체계적 녹색복지 실현
 - 엄마벚속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테마숲 '18년까지 총 90개소 조성
- 가족단위 캠핑장 조성 강화
 - 지방폐교 활용, 전국 곳곳에 '가족캠핑장' 조성
 - 도심 속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 우리동네 도서관 활성화
 - '어디서나 10분거리' 공공·작은도서관 지속 확충
 - 북카페 등 공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마을 구심점 기능 수행
- 가족 여가문화종합정보 제공
 -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 각종 문화행사 종합정보 제공
 - '패밀리 사이트(<http://seoulfamily.or.kr>)'에
공원·유적지, 도서관, 캠핑장 등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 안내
 - 서울시 문화포털(culture.seoul.go.kr)과 연계하여 문화행사 정보 제공

◎ 가족시간정책 모델 개발

행복한 가족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시간정책 개발을 제안한다.

독일 지방자치 정부의 가족시간 정책

가족생활 성공의 핵심요인은 '시간'이다. 시간이 있어야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노동시간, 학교시간, 아동돌봄시간 등 다양한 사회의 시간표들이 때로 서로 충돌한다. 다양한 시간표들이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가족시간과 노동시간을 더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친화적 노동시간을 지원할 수 있고, 가족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시간 정책을 위한 네 가지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기관 간 시간표 조정
- 생애주기 안에서의 시간 재분배
- 성별 및 세대 간 시간 재분배
- 가족 구성원 각자의 시간사용 유능감 증가

시간정책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시간 규제

가족시간확보가 성공적인 가족생활의 선결조건이라고 볼 때, 유연한 근무시간은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준다. 연방정부는 노동시간에 대한 기존 법과 입법을 넘어선 조치들까지 모두 검토한다.

2. 지방자치 시간정책

지역수준에서 시간표들이 더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때 지방자치 정부는 가족지향적인 시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지방자치 정부는 교육, 아동돌봄, 조기개발 등과 관련해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의 일상생활 조직은 단지 아동을 돌보고, 가사를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지역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가족시간 충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정책은 지방자치 가족정책으로 접근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 가족부는 '지방자치 가족시간 정책(Municipal Family Time Policy)'라고 불리는 모델 프로젝트를 5개 파일럿 지역에서 로컬 가족 연합(The Local Alliance for the Family)과 함께 시작했다. 지역 수준에서 해법과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연방 가족부의 재정지원으로 일 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의 시간 갈등이 감소되거나 줄었고, 가족생활의 질, 일·가족 삶의 조화 등이 강조되었다. 가령, 도시냐 지방이냐 등 다양한 지역이 갖는 특수성에 따라 시간정책은 각각 다른 형태의 가족에 집중했다. 각 지역에서 가족의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중요한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리고 시간갈등의 해법을 찾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었다. 파일럿 지역에서 얻어진 교훈은 다른 로컬 연합이나 관심 있는 지방자치 정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되었다.

3. 가구관련 서비스를 통해 가족 지원 개선

가족지원 서비스의 확장은 가족이 시간 사용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시간확보'는 이런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 수요의 주요한 동기가 될 뿐 아니라 증가하는 노령인구도 이러한 가구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요 집단이 되고 있다. 둘째 혹은 다음 자녀를 갖는 결정 뿐 아니라 직장에 재진입하는 단계 동안 유연하고, 투명하고, 지불 가능한 가족지원 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가구 관련 서비스가 법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을 돕는 서비스가 가족과 일·생활 균형에 중요한 기여요인이 되며, 특히 중간소득 이하 가구가 서비스를 더 쉽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은 되었는데,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엄마 아빠가 똑 같이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부모로서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면 더 많은 눈치를 보게 된다. 또 많은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일가족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와 사회의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 제도는 있는데 이용은 어려운 서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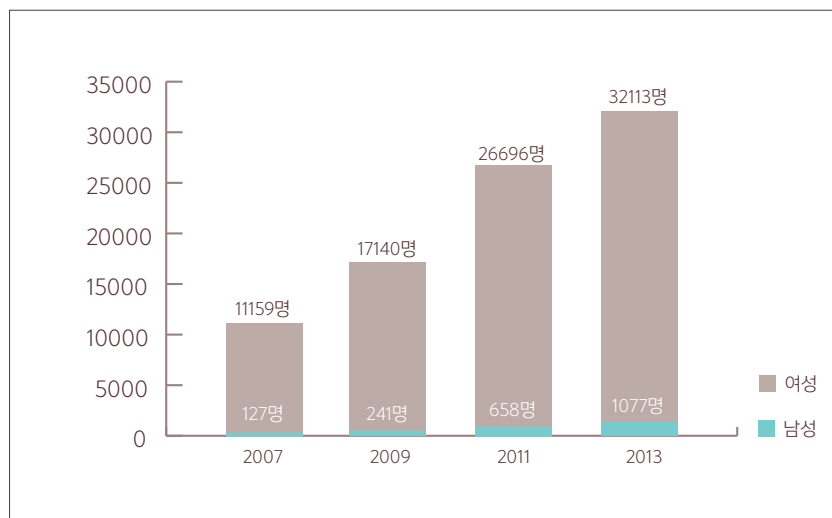
▣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

육아휴직제도, 남성 이용률 매우 저조

서울시의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연도별로 남녀 모두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2007년 남성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1.1%에 불과했고, 2013년 현재에도 3.2%로 매우 낮다.

서울시 연도별 육아휴직 신청현황

출처
2015 성인지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최근 육아휴직제도 관련 다음의 정책변화가 있는데,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고용노동부, 2015).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 씩 육아휴직 사용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휴직급여를 100%(최대 150만원) 지급하는 아빠의 달
- 대체인력뱅크 운영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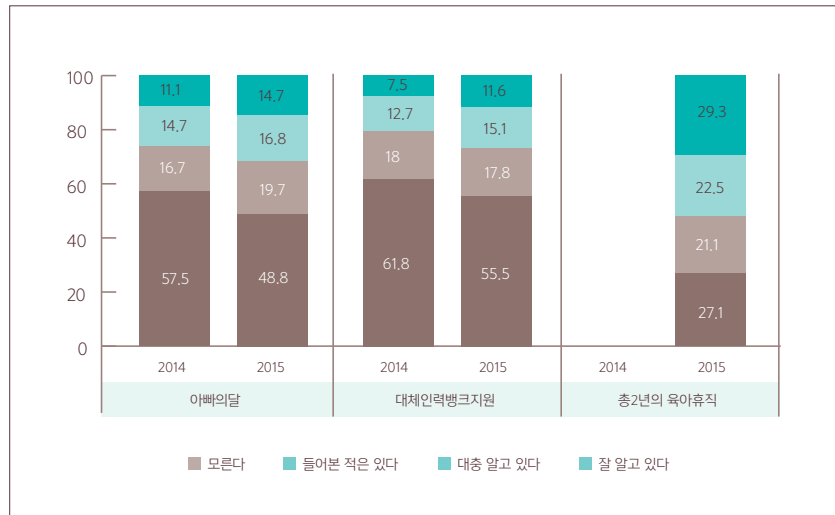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저조한 인지도와 도입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33.2%) 대충 알고 있다는(25.8%) 비율이 59%이고 나머지 23.4%는 '들어본 적은 있다', 17.6%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실제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30.2%,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6.1%, 없다는 사업체가 93.9%이다(고용노동부, 2015).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7.8%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22.3%는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 24.7%는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5.2%이다.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25.7%,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가 74.3%,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사용자가 있었던 사업체는 4.0%이다(고용노동부, 2015).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변화에 대한 인지도 추이 (단위:%)

출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5년), 고용노동부, 201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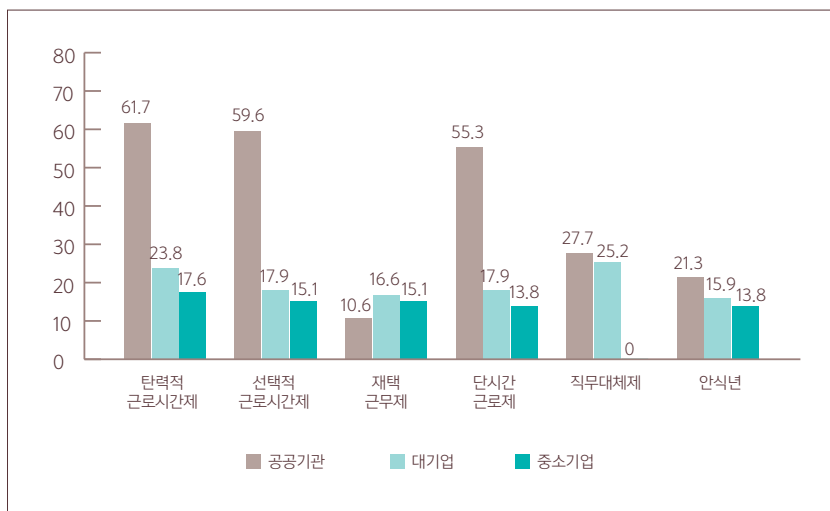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낮은 유연근무 도입 및 이용률

공공기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61.7%, 선택적 근로시간제 59.6%, 단시간 근로제 55.3% 등으로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민간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17.6%, 선택적 근로시간제 15.1%, 단시간 근로제 13.8% 등 전반적으로 도입률이 저조하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a).

서울시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현황
(단위:%)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a



나. 제도의 실질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서울

▣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일·가족양립 문화조성

일·가족양립지원센터는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내 일·가족균형 문화정착을 지원하고, 휴가제도이용 문턱을 낮추고 있다. 2014년부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2015년 주요 실적을 보면, 일·가족양립 기업포럼 개최(80여명 참여), 일·가족양립 컨설팅 우수기업(11개), 일·가족양립 기업진단 및 사후관리 컨설팅(358개)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컨설팅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가능
(시중 대출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기업 당 5억원 이내 용자)

- 서울가족사랑기업 BI 사용 가능(제품, 명함 등)
-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기업 이미지 및 생산성 향상지원
- 서울시 표창(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계획에 의해 선정)
- 기업홍보(서울시와 일·가족양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홍보, 언론보도자료 제공 등)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체계

출처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consulting

<p>인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워크숍을 통한 인식 개선 ◦ CEO 및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 일·가족양립 안내 및 기업 진단 ◦ 맞춤형 컨설팅설계 	<p>조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도 정비 및 새로운 제도 설계 ◦ 법적 규칙 정비 ◦ 맞춤형 교육지원 및 연계 ◦ 서울시 연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p>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기관 네트워크 : 기업에 필요한 일·가족양립 자원 연계 ◦ 기업과 기업 네트워크 : 일·가족양립 추진 과정 공유, 우수기업 벤치마킹 기회제공 	<p>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업 추천 및 우수사례집 배포 ◦ 일·가족양립문화 조성 메뉴얼 제공 ◦ 포럼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정착 지원

일가족양립 컨설팅
우수기업 사례소개

출처
2015 서울시 일가족양립 일터 만들기 컨설팅 사례집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일·가족양립 직장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 신청

서울시 소재 기업이나 기관(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우선지원)은 아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서울시가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consulting>



▣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양립 제도 이용 지원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양립 제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직장맘의 임신·출산·육아기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지원
- 직장맘을 위한 직장 내 고충, 돌봄, 심리정서, 교육, 문화, 건강 등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
- 직장과 사회의 일·가족 양립제도 정착 및 문화조성
- 직장맘을 위한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아빠의 달’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휴직급여를 더 주는 ‘아빠의 달’ 제도를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휴직급여로 준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되는데,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일·가족양립 법제도 및 정책 바로알기

일·가족양립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자세한 법·제도와 정책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legal>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맘 편하게
휴직제도
이용하기

◎ 육아휴직 실질적인 이용

여성 근로자 제도이용 지원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여성 근로자 대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이용을 지원하고, 일가족양립지원센터의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여성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 이용율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매우 낮아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설계
-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하는 고용주에 대해 처벌 강화
-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보너스로 추가 휴가기간 지급
- 자녀 출생 시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휴가기간을 부여하는 남성 할당제
- 육아휴직제도 기간 및 급여 현실화(조사결과, 자녀 1명당 13.2개월, 통상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휴가 신설(직장 내 복무규정 개정)
- 남성 육아휴직기간 중 생후 1년 이내에 반드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엄마와 동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2015. 12)

출처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2015. 12

서울시, 일·가족 양립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개정)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100만원 상한)여서 생활유지가 어려움
 -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 인상 건의
(통상임금의 40% → 70%,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
 - 휴가·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시 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명문화
 - 휴가·휴직 신청시 사업주와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고용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모범사례

독일의 근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 신청제도

독일은 근로자가 익명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업 내 인사 담당부서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업은 심사주관 기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하라는 권고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된다. 심사주관 기관은 해당 기업 근로자가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했음을 알리면서 동시에 가족친화인증 관련 제반 정보를 해당 기업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이 요구하더라도 신청 근로자 신상 정보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법적 의무는 갖지 않는다. 기업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가 가족친화인증을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은 독일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기업의 가족친화 컨설팅 신청을 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근로자의 익명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율 제고 등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족돌봄휴가제도 확대

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

휴직제도의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 육아휴직제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적용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5일(3일 유급)에서 7일 유급으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가족돌봄 휴가 비용 보전

입양가족 대상 휴가·휴직제도 강화

입양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10년 개정부터 동일하게 지원한다. 그러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양 직후 부모와 자녀와 애착관계에 필요한 집중 돌봄 지원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입양시 2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입양자녀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출산휴가에 버금가는 기간으로 증가시키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양시 입양휴가 일수를 확대강화 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질병 및 장애 휴가·휴직제도 추가지원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별도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휴가 및 휴직 제도에서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서울여성가족재단, 2015). 자녀가 장애아동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위기기간 동안에 장애아동 부모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조정휴가를 도입해야 한다.

◎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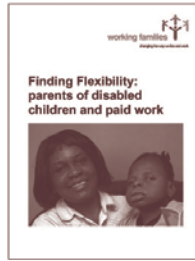
공공부문 중심의 유연근무 확산

유연근무제 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전체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관리직 할당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밖에도 근로시간계좌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저축하여 휴가 혹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유연근무 도입을 통한 취약가족 일·가족 양립 지원

유연근무는 한부모 가족과 장애아동 가족 등 취약가족의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모범사례 유연성 찾기-장애아동 부모와 유급노동



많은 장애 아동 부모들은 승진을 거절하거나, 저숙련 노동을 받아들이거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떠나도록 강요당하면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주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자녀가 장애 아동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위기기간 동안에 장애아동 부모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조정휴가(adjustment leave)를 도입한다.
- 더 많은 고용주들이 부모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생겨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노동시간이나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부문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일자리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를 홍보한다.
- 정부는 일자리를 유연하게 설계하고 홍보하도록 고용주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지침을 발표한다.

3

모든 시민이
적정한 생활을
누리는
서울

주거안심

가족이 잘 살아가려면 직업만큼이나 살만한 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살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한다면, 지친 다리를 쭉 펼 수 있는 단칸방도 없다면,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자녀가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될까 불안하다면 가족들은 평안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주거안심은 가족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시는 가족과 떨어져 1인가구로 살고 있는 자녀, 노부모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 주거문제로 불안한 서울 가족

▣ 전국 가장 높은 임차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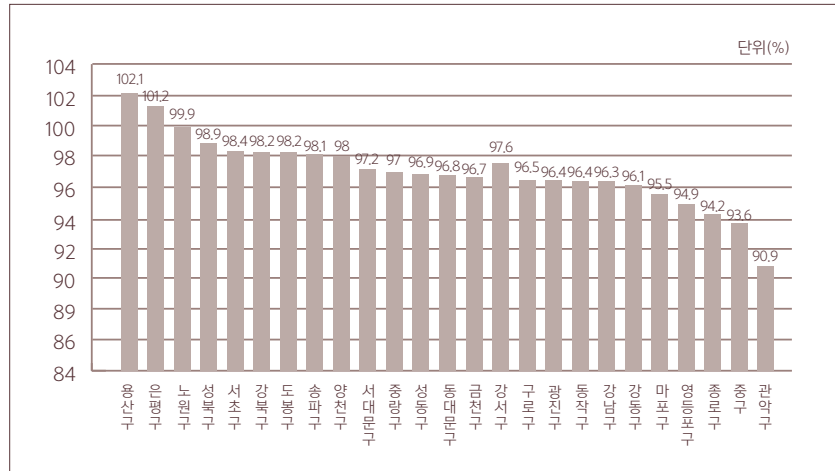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 낮은 공실률, 열악한 신규 주택공급환경에서 비롯되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세입자 비율이 높고,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가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다. 서울의 자가 가구 비율은 41.1%로 전국 54.2%에 비해 10% 이상 낮으며, 전국 시도 중 임차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민주정책연구원, 2014). 특히 주택구매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시 30-49세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지속적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다(서울여성가족재단, 2014).

▣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보급률의 불균형

2012년 현재 서울의 주택률은 97.3%인 반면, 16개 자치구의 주택보급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와 은평구는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이나, 관악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는 주택보급률이 95%에 미치지 못한다. 관악구 등의 주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주택보급률에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서울연구원, 2014).

**서울시 주택보급률
(2010, 단위%)**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통계홈페이지(stat.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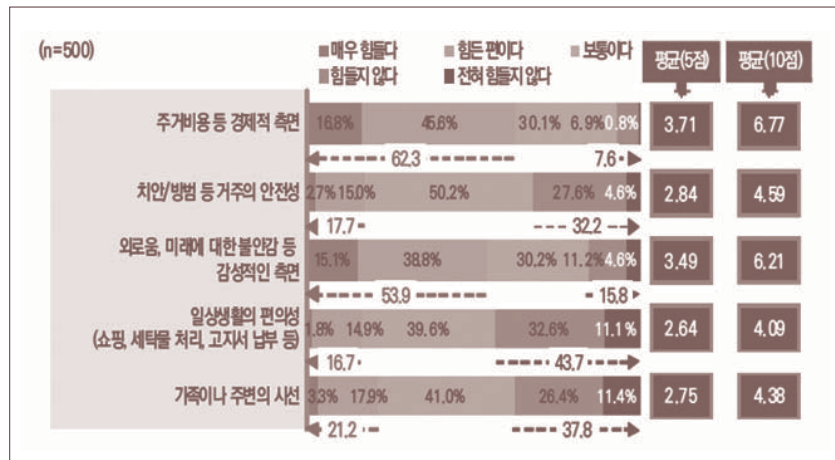


▣ 1인가구 증가와 주거 불안정

서울시 인구 4명중 1명은 1인가구(2015년 기준 27%, 98만 가구)이다.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다인가구 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의 가족정책변화 요구가 나타난다. 1인가구는 가족관계 속에서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 교환과 의존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가구경계를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서울연구원, 2015). 혼자 사는 것의 고충으로는 '주거비용 등 경제적 요인'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안전'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서울연구원, 2015).

**서울시 1인가구의
혼자 사는 고충**

출처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서울시 1인가구
현황

고령	2013년 기준 서울 독거노인수는 253,302명. 여성은 약 70%로 남성에 비해 약 2.3배 정도 많다. 독거노인 비율은 2005년 17.1%, 2013년 21.8%로 4.7% 증가해 2013년 현재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주거는 60세 이상의 61%가 자가 거주, 그 다음이 월세 없는 전세이다. 거주 종류는 아파트가 4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단독주택 36.6%, 다세대주택 9.7%, 연립주택 4.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4%, 주택이외 거주 1.1% 순이다(서울연구원, 2015).
청년	20-34세 청년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 감소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청년들은 지하와 옥탑, 비좁은 집,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대학가 인근 청년의 주거빈곤율이 높다. 주거문제는 청년들이 결혼, 출산 등과 같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일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인구재생산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민주정책연구원, 2014).
여성	서울시 1인가구의 52.7%는 여성이다. 여성 1인가구 중 20-30대 여성 1인가구는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서울시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59.1%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한 주거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주택 내외부, 주변환경으로 인한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서울연구원, 2015).

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4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

- 서울 37만 청년(16.2%)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거주하고, 52만 명(22.9%)이 주거빈곤 상태.
- 서울 1인 청년가구 중 18.8%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36.2%(12만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
- 청년 주거빈곤율(36.2%)은 전체 인구 주거빈곤율 13.0%의 3배이며, 서울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이 주거빈곤 상태에 있음. 이는 전국 청년 주거빈곤율인 14.7%보다도 월등히 높음.

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는 서울

▣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대 융합형 공공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가족, 이웃, 친구와 연락을 단절하고 지내는 고립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공급사업을 통해 장년층의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어르신은 1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도배, 장판) 공사비를 지원 받고, 대학생은 보증금 없이 인근시세보다 저렴한 월 임대료를 지불한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한지붕세대공감 신청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택(방1개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은 홈페이지에서 한지붕세대공감을 신청할 수 있다.

<http://www.dukkubisesang.co.kr/static/seoul.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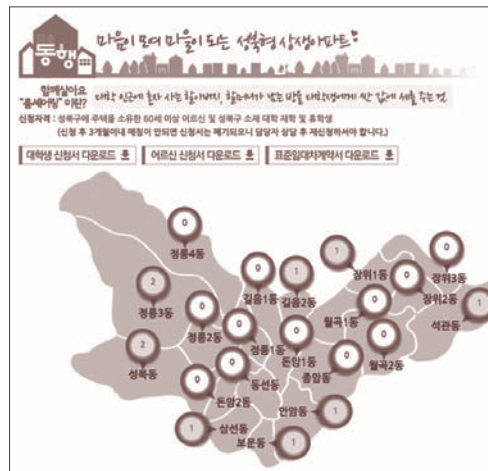


희망 하우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서울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공릉, 정릉 희망하우스)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

<https://citybuild.seoul.go.kr/archives/59014>

http://www.seongbuk.go.kr/sb_new/information/consolidated/roomsharing/roomsharing.jsp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희망하우스 공급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희망하우스 주택현황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sh.co.kr/www/m_157/wpge/lease_wish_intro.do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서울시는 역세권 규제를 풀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한다. 2030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보-제3359호)』가 제정·공포(16.7.14)되었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완료

서울시는 전월세의 지속적 상승으로 서민이 경험하는 심각한 주거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완료했다.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정

서울시는 1인가구 주거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범죄 등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 노동시장 불안정성 및 성별임금격차 현상 등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여대생 여성1인가구를 위한 주택 총33호, 여성1인가구 맞춤형 공공원룸형 주택공급 2012년 방화동, 연남동 원룸 주택 105호, 2014년 사당동,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등 126호를 공급했다.

출처
서울시 1인가구 종합대책 관련 자료

서울시 여성 안전마을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 2015년 여성 안전마을 운영기관을 선정해 총 25개구, 25곳을 운영하고 있다. 14곳('13년)→ 19곳('14년) →25곳('15년) 신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싱글여성 밀집(관악구), 호신술 아카데미(은평구) 등 특화 운영하는 곳이 6곳이다.



범죄예방 반사 미러 설치

주민 호신술 예방교육 운영

여성밀집지역 특수형광염료 도포

▣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서울시 350만 가구 중 약 57%인 200만 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구 중 약 95%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상담, 대출, 분쟁조정, 법적 구제절차 지원 등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주택임대차상담건수는 2007년 20,403건에서 2010년 31,623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ko/node/1309>)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 서울 시민을 위한 안정적 주거권 보장체계 구축

사회적 주택(주거) 정보공유 체계 마련

- 다양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동주거 등 사회적 주택 및 주거를 위한 전문화된 중개 및 분양정보 제공(쉐어하우스 전문 공공중개기관)
- 온라인 포털 서비스와 오프라인 부동산 컨설팅 거점 자치구별로 마련
- 복지관,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역을 기반으로 소득격차를 넘어 사람들의 관계가 살아나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출처

2015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 자료 "네덜란드 사회주택을 이야기하다"

사례

네덜란드의 사회적 주택 정책

네덜란드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주택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다. 사회주택 점유율이 32%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약 230만 채 주택이 사회주택으로 분류된다. 절대 주택 재고량으로도 세계3위를 차지하는 등 품질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 대부분 복지국가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 대해 사회적 낙인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은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은 학생시절, 직장초기 등 중산층도 많은 경우 생애주기에 한번쯤 거쳐 가는 보편적 주거로 여겨진다.

- 네덜란드는 핵가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단위, 1인가구, 한 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통합하는 그룹을 조직하고 그룹별로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있다.

-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극소수 도서지방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를 통해 공급, 관리되고 있다. 사회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택협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가 대표적 특징이다.



◀ 그림 5-9 스타드그노트의 홈페이지

- 주택분양은 소득수준, 가구원수 등의 빈집정보가 제시되는 보닝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닝넷은 사회주택협회가 소유한 사회주택 물량에 대한 주소, 임대료 개별 건물 유형 및 면적과 실 개수, 주택 사양, 입지 조건 등 주택 외부 단지에 대한 정보, 적합성 기준에 따른 배경우선순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허수 등록을

막기 위해 소정의 등록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도록 한다.

서울시 주거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소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기준 마련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 중개수수료 조작, 집주인 '갑질' 예방과 피해보상 등 부동산관련 부조리 제도개선
- 임대주택점수배점 및 지원금상향조정(집걱정 없는 서울)
-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입주연령 상향조정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출처
2012 한국 주택학회

장기적이고 안전한 주거가 보장되는 독일

한국의 공공임대부문은 사회주택부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다. 공공 및 민간 임대인 모두 사회주택과 민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임대인 사이에 거의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한국의 통상적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반면, 독일의 통상적인 계약은 퇴거 보호제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기한이 무한정이다. 한국에서 임대는 불안정하고 중간 단계의 점유형태인 반면 독일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전한 점유형태이다.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공유주거와 사회적 가족 만들기

공유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가치관의 확산은 1인가구 문제를 푸는 하나의 해법이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밥을 같이 먹는 등 약해진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이 늘고 있다. 대표적 유형은 분리된 공간에서 사생활은 누리면서 공용공간에서 가족처럼 생활하는 공유주택들이다.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다양한 맞춤형 주택 공급 (2018년까지 1만호 공급)

- 보육주택, 노인 돌봄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보급
 - 주택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 고독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
- 민관협력으로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 위한 지원 추진
 - 공동체주택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찾아가는 설명회, 전시회 등 홍보 강화
 - 공동체 리츠 등 금융상품 마련 및 공공민간 부지 확보
 - 입주 전 후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및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파견 등.

한국1인가구연합의 '소셜팸(social family)' 운동

2013년 고독사 방지를 위해 창립된 시민단체인 '한국1인가구연합'에서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과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원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 '소셜팸(social family)'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행법상 만18세가 되면 생활하던 보육원에서 나오는 청소년(1인가구 자립청소년)이 연평균 800여 명이고, 자립청소년에게 지자체별로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함께 정부에서 주거지원, 학업지원, 직업알선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있지만, 물적 지원에 한정돼 있고, 수혜대상 또한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취생, 고시생 등이 식사시간 마다 밥만 먹고 헤어지는 모임인 '밥터디'. 소셜 다이닝(social-dining, 1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모임을 주선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주도하는 '집밥' 모임도 사회적 가족의 한 형태이다. 1인 여성가구들의 사회적 가족 형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2013년 발족한 '그리다 협동조합'은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 자리잡은 '어슬렁 정거장'을 거점으로 1인 여성가구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경제적 자립, 심리적 충진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독거여성들이 함께 만나서 수다 떨고 발레, 음식, 명상 등 자신의 재능과 물품을 다른 여성과 나누기도 한다. 향후 독거 여성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해 주거나 남은 반찬과 식재료를 나누는 셰어링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및 사회적 돌봄 지원

서울시는 2018년까지 1인가구를 위한 공공(준)주택을 3,300호 공급한다. 낡은 고시원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공공고시원' 또는 '공공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고 1인당 거주공간이 협소(평균 3.68㎡)할 경우 방2실을 1실로 확장하고, 화장실, 거실 등 공용공간을 최대로 확장,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한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고,

시세는 주변 고시원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한다(출처: 서울시 1인가구 종합대책 관련 자료).

장년층 가족해체로 인한 불안한 독신자 그룹, 사회와 연결을 갖지 못한 청년층, 고시촌에 혼자 사는 중년 등 스스로 원하지 않게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해 주거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비록 혈연적으로는 혼자 거주하지만 사회적으로 1인이 아닌 관계로 개선시킴으로서 1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위기의 청년 공간을 재구성하다",
네이버 매거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 contents.nhn?rid=2867&contents_ id=101480](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867&contents_id=101480)

청년 주거 대안 공동체 민달팽이 유니온

•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에 창립된 협동조합이다. 서울시 남가좌동에 위치한 '달팽이집' 1, 2호는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대안 주거의 예이다.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 세입자네트워크를 형성해 오픈키친이나 오픈테이블과 같이 공개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청년 주거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 대안 주거 모델로 '모두의 아파트'도 있다.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 청년층의 주거 빈곤율은 36.8%이며, 서울대는 타지에서 온 학생이 많지만 기숙사 수용인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문과 총학생회가 머리를 맞대 탄생했다. 학생 8명이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서 아파트 한 채를 공유한다. 단순히 먹고 잘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을 어떻게 나눠 쓸지, 가구는 어떻게 배치 할지, 빨래나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지 등 입주자 8명이 공동생활을 위한 세세한 규약을 함께 만든다.

• 이밖에도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 '우주' 14호 홍대 점도 있다. '우주'의 공동공간인 거실에 TV는 없지만 텐트와 야외용 의자가 있다. '우주'는 입주 신청자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독서, 여행, 요리 등 기호가 같은 사람끼리 묶어 집을 배정한다. 서울시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 18개 지역 셰어하우스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우주'에서 방 선택의 폭도 넓어서 1인룸, 2인룸, 3인룸에서 나눠 살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함께 쓴다.

• 달팽이집, 모두의 아파트, 우주 세 곳은 모두 한 집에서 개인공간을 적당히 확보 하면서 거실이나 부엌은 함께 쓰는 주거형태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주거비 부담과 홀로 고립되기 쉬운 1인가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활안심

‘보릿고개’가 옛말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가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밤중에 나가 혼자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고, 투잡(two job)을 뛰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가족이 적지 않다. 적어도 가족이 기본생활은 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는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가. 생활이 불안정한 서울 가족

▣ 소득불평등 심화와 근로빈곤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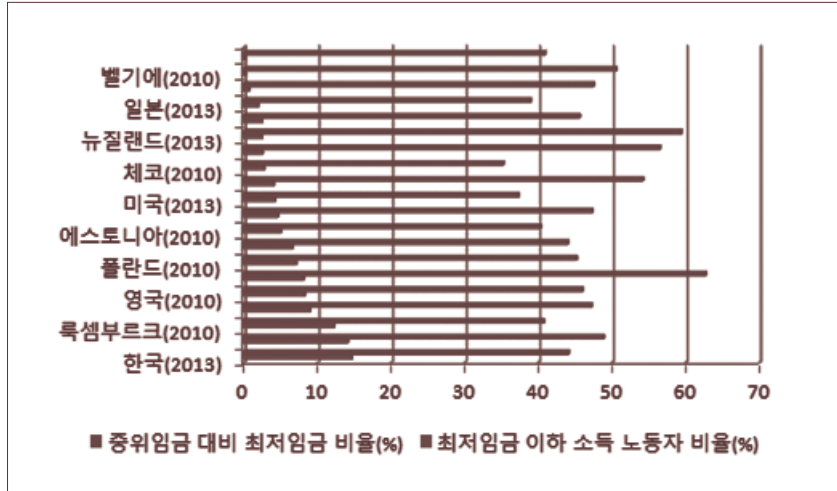
소득양극화 심화

중산층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은 늘어났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저임금 근로자가 확대되어서 임금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저임금은 2006년 3,10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연평균 6.7% 상승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4%, 중위임금 대비 41%로 28개 OECD 국가 중 각각 22위와 23위로 하위권이다. 이에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서울연구원, 2013).

근로빈곤층 증가

한국 노동자 가운데 15% 가량은 최저임금 혹은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다. OECD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7배나 많다. 한국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국제적으로 볼 때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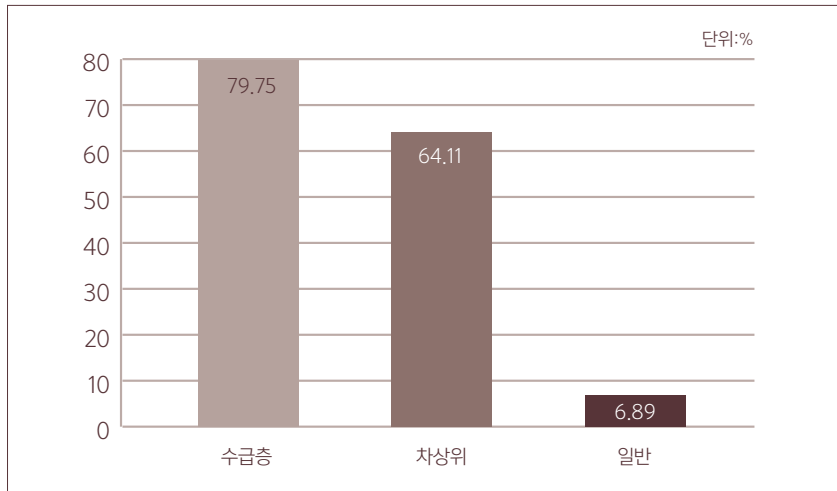
▣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른 아동 빈곤율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가구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가구인 경우 빈곤율이 79.75%로 가장 높고, 차상위 가구인 경우 빈곤율은 64.11%로 두번째 높으며, 일반가구인 경우 6.89%로 가장 낮다. 가족 형태별로 보면 양부모 가구는 3.22%이지만 한부모 및 조손가구 경우 가구 빈곤율이 19배 가량 높다(정은희 외, 2013). 가구 상황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소득계층별 빈곤율

주: 소득계층별 빈곤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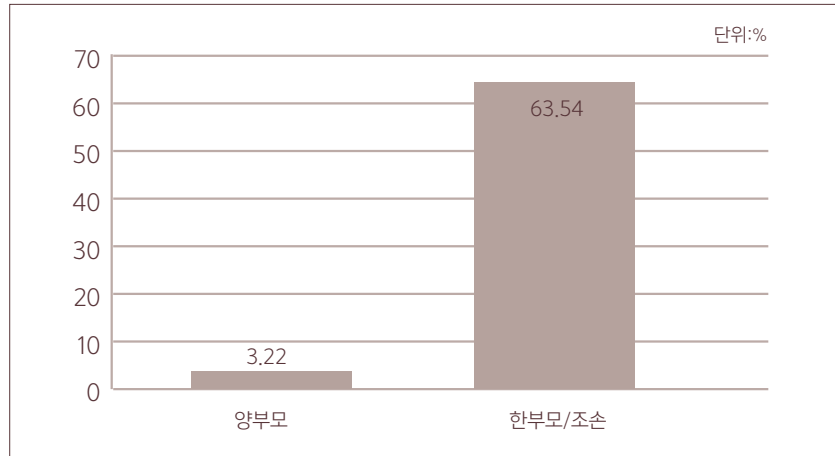
자료: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정은희, 2013)



가족형태별 빈곤율

주: 가구형태별 빈곤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5).

자료: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정은희, 2013)



나. 안정된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서울

▣ 서울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시행

서울시는 2015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시급 6,687원(월 140만원 수준)의 생활임금을 정해 시행했고, 2016년 7,145원(최저임금 대비 1,115원 상승)으로 인상해 시행함으로써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했다.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인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14.7%) 높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33254>

2016년 10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개최

서울시는 10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는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하고 4개 경제단체, 6개 민간기업과 생활임금도입 MOU를 체결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구 포함)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20여년 운영되어왔지만, 2005년부터 8년째 개선 없이 5만원의 비현실적 금액이 지급되다가 2013년에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015년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급여목적이 '저소득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가생계급여 지원인지, 적절한 아동양육의 질 보장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부모가족지원 내 아동양육비와 생계비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이분화 되어서 현행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하고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 2012).

가족유형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현황
(2015.12.31 기준)

구 분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계	25,152	61,256	25,059	61,163	93	93
모자가정	18,886	46,074	18,804	45,992	82	82
부자가정	5,914	14,425	5,911	14,422	3	3
청소년모자가정	245	502	237	494	8	8
청소년부자가정	34	70	34	70	-	9
조손가정	73	185	73	185	-	-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150,000원(월)/ 1인당	154만원 이내	실비(분기별)	월 10만원
		(연)/1인당		(국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유형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모 또는 아버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구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통비
대상	만 12세미만 아동	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 고등학생
기준	100,000원(월)/1인당	50,000원(년)/1인당	입학금, 수업료 전액	86,400원(분기별)/1인당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 생활임금 지원 확대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낮고, 적용대상도 시가 직접 고용한 소수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생활임금이 상징적 정책을 넘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용역 근로자 및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방법 이외에도 '서울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한 우대(가산점)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조달 부문에 의무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자치구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하는 것과 함께 자치구와 협의구조를 만들어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서울연구원, 2015).

◎ 아동수당, 한부모수당 시범 도입

아동수당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이거나 주어진 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장애아동, 입양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의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포괄적인 현금지원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아동수당 시범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간의 소득을 재분배 하고, 아동빈곤을 완화 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단계적으로 보면, 빈곤완화 효과와 더불어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최상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

• 주요국의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주로 1930-1950년대에 이루어졌고, 현재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약 90개국에 달한다. 1926년 뉴질랜드가 아동수당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1940년에 프랑스 등 7개국에 불과했던 것이 1949년 영국 등 27개국, 1967년에 65개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 중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로 일본과 미국이 대표적이었으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늦은 1971년에 제도를 도입했다.

• 일본의 경우, 12세까지 아동(초등학교 졸업 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전년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3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수당 및 특례급부와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수료 전 아동에게 적용되는 초등학교 특례급부로 구분된다. 3세미만 자녀일 경우에는 자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월 1만엔을 지급하고,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수료전의 자녀일 경우에는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5천엔,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월1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아동수당의 주된 특징은 재원조달에서 사업주의 각출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3세 미만 아동

- 피고용인 경우, 사업주 부담 7/10, 국가 1/10, 지자체 2/10 부담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 부담없이 국가 1/3, 지자체 2/3부담

•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아동

- 피고용인의 경우, 사업주 부담없이 국가 1/3, 지자체 2/3 부담
- 자영업자인 경우, 국가 1/3, 지자체 2/3으로 변동 없음

한부모 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저소득한부모에 대한 추가 생계비 지원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또는 한부모 대지급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자녀가 없는 가족 대비 자녀가 있는 가족 전체에 대한 비용보전의 측면으로 정책대상은 한부모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유자녀 가족이 대상이 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대지급수당 도입'은 이혼한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대지급의 형태로 지원하는 급여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이혼한 한부모가족 전체에게 지급될 수 있다(여성정책연구원, 2012).

위기지원

모든 가족이 살다보면 한번쯤은 누구나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주면 위기는 지나가는 건널목 정도의 위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한 가족은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빈곤으로 빠져 들거나, 폭력에 노출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한다. 가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서울시가 제공한다.

가. 살면서 한번쯤 위기를 경험하는 서울 가족

▣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는 가족의 증가

가족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예컨대, 양부모 가족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전환 할 때,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룰 때, 결혼 하지 않은 상태로 출산을 해야 할 때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환(transition)에 직면하는 가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 가구수와 가구원 수 추이

출처
서울통계정보시스템, 저소득 한부모가족,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DS7100.jsp?re_stc_cd=437&re_lang=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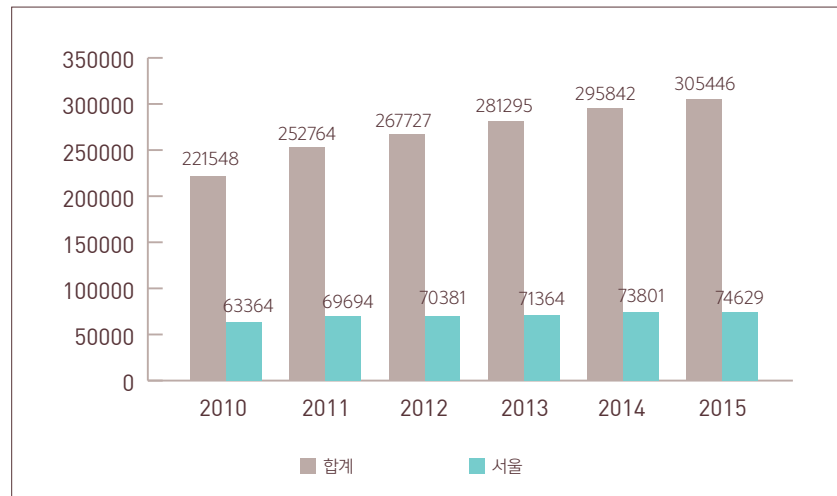
한부모 가구원 수를 보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한부모 가구 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은평구 순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중 구,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순이다(서울통계정보시스템, 2015).

국적이 다른 성인이 만나 결혼하는 비율도 증가

2009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외국출신주민 전체 수의 30.3%인 33만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총인구의 3.3%에 해당한다. 서울거주 166개국 출신의 주민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출신이 약 19만 명으로 서울 전체 등록 외국출신 주민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13,100명(5.3%), 타이완 8,800명(3.4%), 일본 6,800명(2.7%), 베트남 5,200명(2.0%) 몽골 3,900명(1.5%), 필리핀 3,600명(1.4%) 순이다. 서울에 진출한 주요 출신국가와 밀집거주 자치구를 살펴보면 중국인은 영등포구(33,800명)와 구로구(26,200명) 순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인이 강남구(2,000명)와 용산구(18,00명), 타이완인은 서대문구(2,400명)와 마포구(1,500명)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출처: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가족 통계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9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3650



미혼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모 주거 공간은 부족한 실정

미혼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9곳, 미혼모자시설은 6곳이다. 신생아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1인 가구의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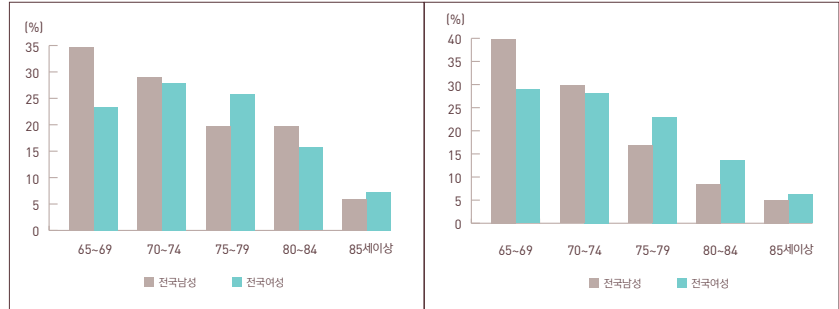
서울시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 가구의 27%이다. 1985년 약 7%에 비해 지난 30

년 동안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약 4배 증가하였다. 1인가구 증가는 고독사 증가와 맞물려 있다. 고독사는 20-30대 청년, 40-60대 장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고령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75세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가구 비율이 높다.

고령 1인가구 연령분포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서울시 고령1인가구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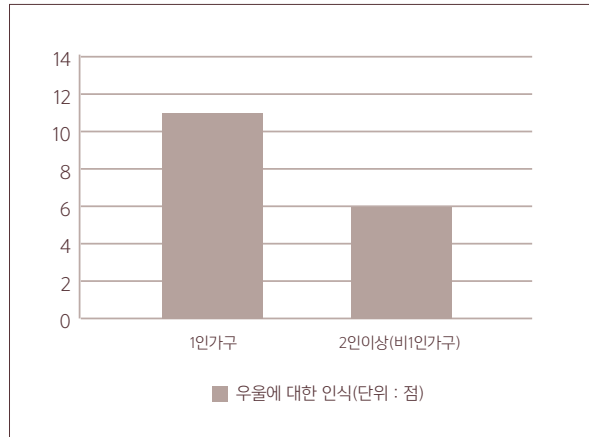
전국 고령1인가구 연령분포

서울시 고령1인가구 연령분포

서울시 독거노인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치구는 노원구, 성북부, 관악구이다. 모두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남성 독거노인의 비율보다 높다. 자치구별 분포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서울통계정보시스템, 2014년 어르신복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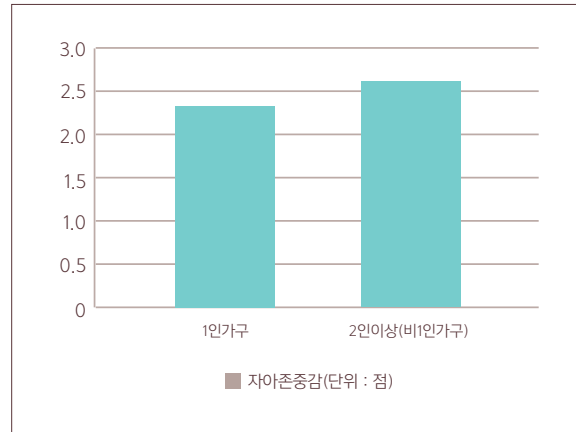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우울에 대한 인식이 2배 가까이 높다. 자아존중감도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와 비1인가구별 우울에 대한 인식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복지패널 5차년도(2010)

1인가구와 비1인가구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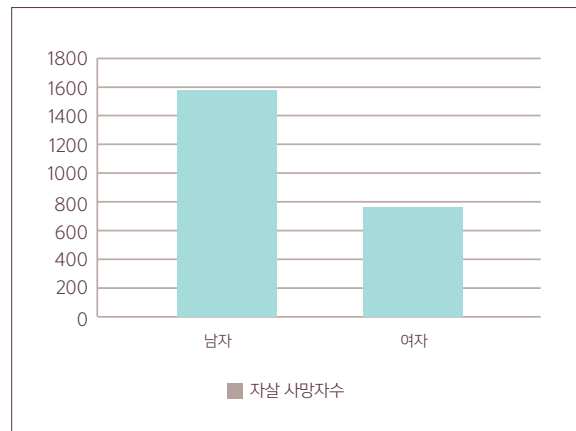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2014년 기준 서울 자살은 2,500여명,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랑구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초구이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24.7명 연령별로 45-64세가 가장 높다. 비율을 봤을 때 65세 이상이 10만 명당 50.3명으로 가장 많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두 배 이상이다.

서울시 성별 자살 사망자 수 현황

서울통계정보시스템, 자살률(구별), 2015년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7100.jsp?re_stc_cd=10622&re_lang=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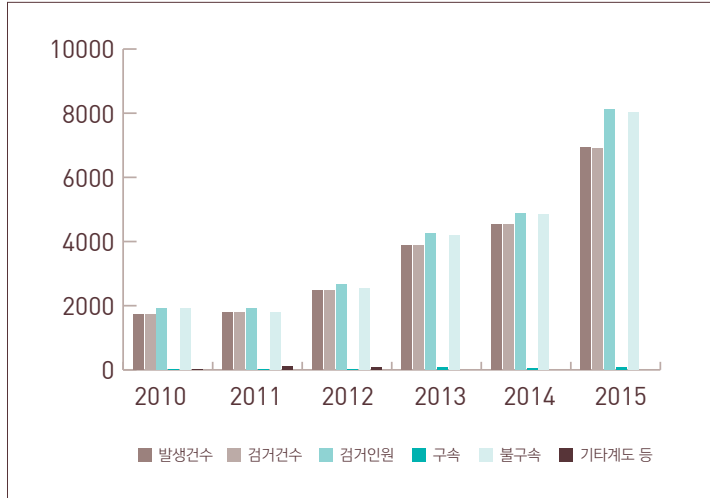


▣ 가정폭력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5년간 서울시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발생현황

출처
 서울통계, 2016.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7100.jsp?re_stc_cd=75&re_lang=kor



나. 가족의 위기 해결을 지원하는 서울

▣ 대상별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부모가족자립지원정보제공
- 온라인네트워크구축 및 홍보
-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사업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 한부모자립지원 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 한부모학습지원사업(좋은부모지원)
-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
- 후원 및 한부모가족특별지원사업
- 나눔으로 행복찾기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공모전
- 한부모가족 캠페인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 모두 함께 대축제
- 네트워크구축 및 연계지원사업
-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사업

직장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강화

직장 한부모를 위한 야간 상담(18:00이후), 주말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전화 02-861-3020)

2015년도 야간상담은 18개소, 주말상담 7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서울특별시, 2015).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미혼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미혼한부모가족의 위기임신, 자립, 아동양육,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다문화지원센터

서울시는 24개 자치구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가족·성평등·인권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상담, 홍보 및 자원 연계,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외에 다문화 관련 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에서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운영하고 있다.

-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 지정운영하고 있다.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지원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특별시, 2015)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울타리 쉼터'에서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국인주민 인권상담 전담창구(글로벌센터 내) 운영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응한다.

- 「한울타리」: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한 공간을 운영한다.

● 자살예방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서울시민의 위기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지원과 유족 지원을 하고 있다. 상담은 1577-0199. 지역별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교육과 상담을 확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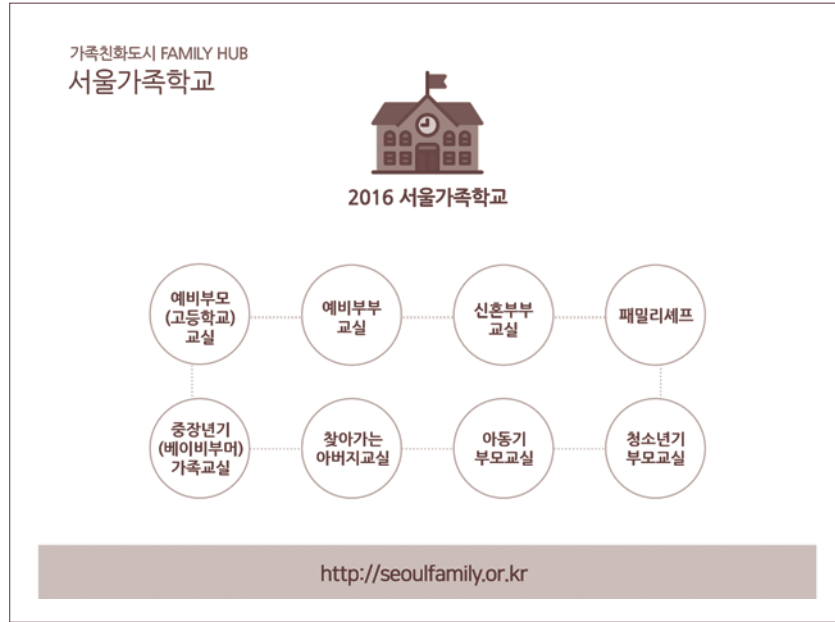
서울시 가족정책 수행의 주요 전달체계기관으로, 서울지역 자치구 가정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모든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족자원 나눔 서비스를 통한 돌봄문화 확산과 가족친화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http://family.seoul.go.kr/business/business00.html>



-가족교육 : 서울가족학교 운영

서울가족학교는 생애주기별 교실 운영으로 이루어져있다.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으로
 는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실, 예비부부교실, 패밀리세프,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중장년기 가족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있다.



출처
 서울시간강가정지원센터
 서울가족학교 블로그,

http://seoulfamilyc.blog,
 me/220782316308

서울가족학교 운영기관
 2017년 20개 자치구 운영중

자치구 센터	센터설치 장소	대표전화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3412-2222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987-2567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골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2606-2017
관악구	1센터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남파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 3층 2센터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47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883-9383 883-9390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458-0622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803-7747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운빌딩 3층	979-3501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995-6800
동대문구	동대문구 창계천로 521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7층	957-0760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사당2동 주민센터 2층	599-3301
서대문구	1센터 - 서대문구 중가로 244 2층 2센터 - 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홍제동 자치회관 2층 3센터 - 서대문구 중가로 30길 45-9, 2층	322-7595 730-7595 322-7554
서초구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구민회관 2층	576-2852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 6길 9 3층	3395-9447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3290-1660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443-3844
양천구	양천구 중앙로 46길 57 은행정어린이집 4층	2065-3400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2678-2193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3층	797-9184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 174 3층	376-3761
중구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2279-3891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가족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다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공고를 보고 참여 할 수 있다.
<http://seoulfamily.or.kr/>



-가족 상담 확대 : 가족 갈등과 위기를 예방

서울시민은 각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상담, 가족 및 부부상담, 예비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보다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문화 및 돌봄 사업

- 작은결혼식 플랫폼· 아이돌봄 서비스(종일제 및 시간제)지원
- 남성돌봄 : 아빠 육아교육과정
- 가족돌봄 한마당
- 부자유친 골목답사/ 부자유친 가족학교
- 패밀리 사이트 운영
- 시민 공모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란?

<https://www.idolbom.go.kr/home.go>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가정의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해 아동을 안전하게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준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에서 만 24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용 가능

* 아이돌보미란? 육아·돌봄 취업 의사가 있는 분이 아동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1:1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돌봄을 지원한다.

▣ 평등과 존중의 가족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

가족내 불평등과 가족간 편견을 개선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추진한다(서울특별시, 2015).

▣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지원 강화

주거불안정을 축소하기 위해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범죄에 대한 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여성안심특별시' 및 비혼여성·1인가구를 위한 가이드 북 제공, 여성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환(transition) 시기에 직면하는 위기 가정에 대해 취약계층 특히 대상별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취약한 가족에 대한 사후 서비스보다는 취약해지는 상황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oman.seoul.go.kr/archives/44528>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 장소: 25개 전 자치구
- 시간: 월~금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방법: 자치구 상황실 또는 120 전화 신청

① 지하철역·버스정류장 → ② 신청자와 만날 2인1조 스카우트 이름 정보 확인 → ③ 약속된 장소에 도착 후 스카우트 신분증 확인 → ④ 스카우트와 함께 집 앞까지 안전하게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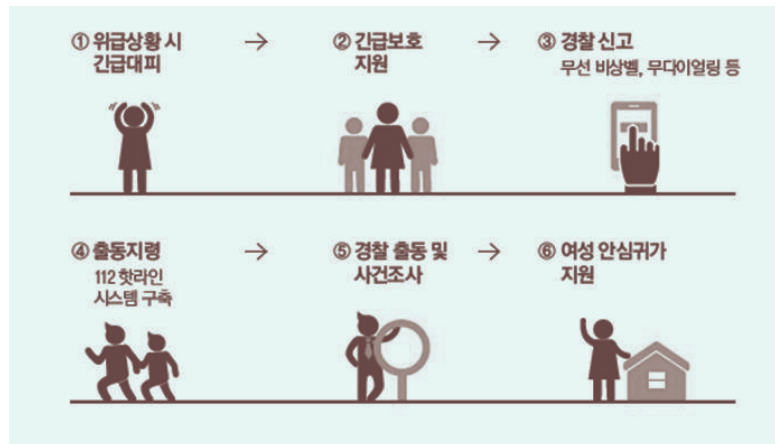
여성안심택배

- 장소: 25개 자치구 160개소 설치 운영
- 시간: 365일 24시간(일부지역 제외)
- 방법: 택배 신청 시 '받을 사람' 주소지에 가까운 '여성안심택배함' 주소 기재
- 요금: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 시 24시간마다 1,000원 부과)
- 문의: 안심택배고객지원센터 1599-2740, 1599-5740



여성안심지킴이집

- 장소: 서울 전역 CU, GS25, 7-ELEVEN, MINISTOP, C-SPACE 5개 편의점 800여 개소
- 시간: 24시간
- 내용: 위기 상황 시 긴급 대피, 경찰신고, 안심귀가 지원
- 방법: 편의점 우측 상단 '여성안심지킴이 집' 마크 확인 후 대피



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가족의 미래

◎가족관련 종합 정보 제공 “패밀리사이트” 구축



패밀리사이트 <http://seoulfamily.or.kr/>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정보와 지원 체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종합 콜센터에 가족지원을 위한 정보 및 상담 제공 구체화, 지원의 다양화,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별도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패밀리사이트 운영은 2016년 12월 시작했다.

패밀리사이트(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콜센터 포함) 운영: 접근성, 정보제공의 용이성, 긴급한 상황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긴급지원 필요상황”에 베를린 가족포털에는 없지만 서울시 패밀리사이트에 신생아 유기 예방을 위해 “싱글맘 출산”항목을 추가로 넣어 관련 정보와 지원 가능한 자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수 사례

독일 베를린 가족포털(Zuhause in Berlin) 사이트

- 베를린시 가족자문위원회와 3년간 협업의 성과로 가족포털을 완성하였다.
- 가족에 대한 확장된 기본개념에 대한 동의에서 출발하였다.
- 수많은 가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접속할 수 있다.
- 다차원적 포털 구조로 이용자가 어떤 영역에서 검색하더라도 찾고자 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다.
- 검색은 아래 3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 주제별 영역 : 가족관계, 상담지원서비스, 건강, 교육과 취업, 재정, 여가시간과 문화, 민주주의 교육과 참여 →주제 검색 후 세분화
 - 가족상황별 영역 : 다양한 가족형성단계, 긴급지원 필요상황, 교육과 일, 자신과 가족 돌봄 상황, 여가생활단계, 참여와 어울리기
 - 가족구성별 영역 :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와 성인, 조부모와 노인, 친구와 이웃, 가족을 위한 전문 인력
- 정보제공, 지원서비스 신청, 상담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의 위기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

다양한 가족의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예방중심, 선제적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완충 및 상황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전환(transition) 시기에 어느 가구나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 주거,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른 역할, 자신과 아이들(피부양자)에 대한 돌봄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기 전과 직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면 가족의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 지원 사례는 영국 버밍엄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364%ED%98%B8.pdf>

영국 버밍엄 : 사회적약자 종합지원 정책 실행

영국 버밍엄시에서는 2003년부터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을 실행하였다.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주거 및 가정문제는 조기에 도움을 제공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또한 지원정책의 전 과정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모두 계획하고, 실행하고,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영국 버밍엄시처럼 서울시도 위기가족에 대한 대응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수혜 가족 욕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한부모 가족의 욕구에 기초한 프랑스 ‘한부모 가정 독립거주 지원’ 사례이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364%ED%98%B8.pdf>

프랑스 파리 : ‘한부모 가정 독립거주 지원’ 모성센터

2015년 파리는 파리 19구에 ‘세잠’ 모성센터를 개설하였다. 파리지 가구 중 28%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다. 이 센터의 입주 대상은 7개월 이상의 젊은 임신부, 3세 미만의 아동과 엄마들이다. 센터에 입주하지 않고 독립된 30여채 아파트에 따로 거주할 수 있다. 3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공동 수유공간과 전문가들에 의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살 및 동반자살이 많은 한국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래는 외국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사례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장기적인 정책 차원의 사례와 일본 교토처럼 ‘자살예방주간’에 맞추어 시민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또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예)한국인 가구 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와 같은 활동 지원도 필요하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EC%A0%9C392%ED%98%B8.pdf>

호주 빅토리아주 : '정신건강 10개년 계획'

호주에서는 2015년 '정신건강 10개년 계획'에서 자살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에는 회복탄력성 구축, 취약계층 지원, 자살행위자 보호, 최적의 개입방법 연구 개발, 자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지원이 있다. 회복탄력성 구축에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 과목을 신설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내 성소자의 수용성 향상을 '안전한 학교 연대'와 협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25%ED%98%B8%282009%EB%85%8410%EC%9B%9419%EC%9D%BC%29_0.pdf

일본 도쿄 : 자살방지 네트워크

일본 도쿄부 자살방지대책 시범지구로 지정된 아다치구는 2009년 변호사회, 기타센주 법률상담센터, 일본의 고용지원센터 등 구내 24개 기관과 제휴해 '마음과 생명의 상담 지원 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아다치구는 2년간 자살건수가 부 전체의 18%를 넘어 심각하였다. 아다치구는 2008년부터 구청 창구직원뿐 아니라 구민과 대면할 기회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과 등의 창구직원에게 게이트키퍼 연수를 실시 전 직원의 10%인 약 400명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구내 사회복지협의회, 근로기준 감독기관, 경찰서, 소방서, 민간 병원 등은 네트워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게이트키퍼 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EC%A0%9C320%ED%98%B8.pdf>

일본 교토 : 정신건강 체크시스템 '마음의 온도계'

교토시는 2013년 9월 자살예방기간에 '마음의 온도계' 개설 이용요금은 무료이고 성별, 나이만을 기재하면 된다. '마음의 온도계'는 1) 자신의 마음상태, 2) 직계가족의 마음상태, 3) 곤란할 때 극복하는 방법, 4) 알코올에 대한 대처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 마음의 건강상태를 검사하고,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그림으로 결과를 보여준다.

◎민주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가족문화 확산

민주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지

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학교”, 상담, 교육, 캠페인을 통해 가족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소통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 강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가족문화 생활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373%ED%98%B8%28%EC%88%98%EC%A0%95%29.pdf>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고교 교육과정에 가정폭력 예방 교육 포함 의무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16년 1학기부터 7~10학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재는 주정부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정폭력 예방 교재’를 통해 학교와 담당교사들이 교실에서 실시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 하고, 가족간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교과 과정에서부터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외국 사례들을 볼 때 가족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가족 정책 네트워크

서울시

지역

유관 기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 가족정책 수행의 주요 전달체계로, 서울지역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모든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족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족자원 나눔 서비스를 통한 돌봄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전화	주소
서울시센터	318-0227	중구 소파로 4길 6
강남구	3412-2222	강남구 개포로 617-8
강동구	471-0812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청소년회관 2층
강북구	987-2567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강서구	2606-2017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관악구	883-9383	1센터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 3층
	883-9390	2센터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광진구	458-0622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구로구	830-0450	구로 디지털로 31길 109 4층
금천구	803-7747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노원구	979-3501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도봉구	995-6800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동대문구	957-0760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7층
동작구	599-3301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사당2동 주민센터 2층
마포구	3142-5482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2층
	322-7595	1센터 -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730-7595	2센터 - 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홍제1동 자치회관 2층
서대문구	322-7554	3센터 - 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 2층
	576-2852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구민회관 2층
성동구	3395-9447	성동구 무학로 6길 9 3층
성북구	3290-1660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송파구	443-3844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양천구	2065-3400	양천구 중앙로 46길 57 은행정어린이집 4층
영등포구	2678-2193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용산구	797-918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3층
은평구	376-3761	은평구 서오릉로 174 3층
종로구	764-3524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중구	2279-3891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중랑구	435-4142	중랑구 용마산길 369

주소

서울시 중구 소파로 4길 6

홈페이지

<http://seoulfamily.or.kr>

연락처

대표전화 : 1577-933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우 156-808

홈페이지

www.seoulwomen.or.kr/

연락처

전화 : 02) 810-5101
팩스 : 02) 810-5100

2002년부터 다양한 서울 여성가족의 변화상에 맞게 여성 일자리, 일·가족 양립, 가족, 보육, 안전, 사회통합, 성 주류화 등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민의 삶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여러 가지 시민 교육을 한다. 또한 서울에 있는 여러 여성단체와 커뮤니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하게 성장된 모임들이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크게 정책연구, 교육, 네트워킹 세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서울여성플라자라고 하는 여성NGO의 사무·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타 정보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위탁으로 여성 취업·창업 기관들과 네트워크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09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두리모·부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서울시 강서수도사업소민원센터 2~3층)

홈페이지

<http://seoulhanbumo.or.kr/>

연락처

전화 : 02) 861-3020
팩스 : 070) 7469-3024

가족단위 사업 :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개발, 인식개선 사업,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수행기관 지원

서울특별시 한울타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한 공간인 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한울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정보, 생활정보, 취업정보 등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제공들을 제공, 사이버 상담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가능, 우리들 이야기 게시판, 구인·구직게시판 등을 통한 유용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mcfamily.or.kr/>

연락처

전화 : 02) 843-5431
팩스 : 02) 845-5434

기타 정보 :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허브 기관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서울시학부모 지원센터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합구모 교육을 제공하며 자녀교육과 관련한 고충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박부모전담 기구'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2
창덕여자중학교내

홈페이지

<https://parents.sen.go.kr/main.do>

연락처

전화 : 02) 318-1196
팩스 : 02) 3999-750

서울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 시민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동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주민 3인'이상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성장 단계별 맞춤형 주민 지원,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마을 활동가 발굴, 육성 및 주민 네트워크 지원, 대안적 마을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연락처

전화 : 02) 385-2642

팩스 : 02) 354-928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새롭게 출발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람들의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 사회적경제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모임, 서울 사회혁신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사회적경제 협동허브,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 활동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홈페이지

<http://sehub.net/>

연락처

전화 : 02) 353-3553

팩스 : 02) 383-3553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4년부터 서울시가 육아서비스의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출범했다. 이는 자치구별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통합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시민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연령별 발달 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양육상담, 부모교육, 장난감대여등을 지원해 집에서든 맘편히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어린이집 이용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 아이조아 서울 맞춤형선택 사업,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등 어린이집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우리 동네보육반장을 통해 어린이집, 놀이시설,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돌봄공동체등 지역내 육아자원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부모에게 제공하고 '보육반상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내 육아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25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허브 기관

센터명	주소	연락처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	02-737-0890
중구	중구 다산로 32길 5	02-2263-2626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02-749-9673~4
성동구	성동구 난계로 160	02-499-5675~6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	02-467-1827
동대문구	동대문구 황물로 62	02-2247-5843~5
종량구	종량구 망우로 67길 10	02-495-0030~1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02-918-8080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02-994-7480~1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02-3494-3341~2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02-930-1944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	02-351-3629/3630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보건소 별관 1층	02-3217-9550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	02-308-0202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02-2646-7790~1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 2길 50	02-2064-2730~2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03	02-859-5678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02-894-2264~5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02-833-6022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02-823-4567
관악구	관악구 쑥고개로 128	02-851-2834~5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	02-598-9340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72길 7	02-546-1735~7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235	02-449-0505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6길 16	02-486-3516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24길 04515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

연락처

전화 : 02) 772-9814~9

팩스 : 02) 772-9820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을 덜기 위한 종합지원, 직장맘의 파워업을 위한 교육과 커뮤니티, 그리고 일·가족양립을 위한 직장·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자양동) 1층

기타 정보 : 6개 자치구(강서, 구로, 동작, 마포, 서초, 용산, 종로, 중구)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홈페이지

www.workingmom.or.kr/

연락처

전화 : 02) 335-0101
또는 다산콜 120 + 5번
팩스 : 02) 335-1070

도심권50플러스센터

도심권 50플러스 센터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인생 이모작 세대를 위한 중간 지원적으로 신 시니어를 위한 교육, 일자리, 정보, 문화 관련 복합 정보를 제공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센터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동의빌딩

기타 정보 : 이모작 열린학교는 50+세대가 자유롭게 강의를 열고 서울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갖는 50+세대가 주도하는 배움과 나눔의 열린 학습의 장입니다.

홈페이지

www.dosimsenior.or.kr/main/main.html

연락처

전화 : 02-3672-5060
팩스 : 02-3672-5061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 역할을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지지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전망과 고용 지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 및 협력 강화, 여성일자리 정보 허브/거버넌스 강화가 있다.

주소

동작구여의대방로54길18
서울여성플라자4층

홈페이지

<http://womanup.seoulwomen.or.kr>

연락처

전화 : 02-827-0130
팩스 : 02-827-0131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 발전 센터	동부	광진구 아차산로30길36	02-460-2300	http://dongbu.seoulwomen.or.kr
	서부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02-2607-8791	http://seobu.seoulwomen.or.kr
	남부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02-802-0922~3	http://nambu.seoulwomanup.or.kr/
	북부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	02-3399-7607~9	http://bukbu.seoulwomen.or.kr
	중부	마포구 토정로35길 17	02-719-6307~8	http://jungbu.seoulwomen.or.kr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종로	종로구 대학로 11길23 스타시티빌딩 2~4층	02-765-1326	http://www.sbwomen.or.kr
	용산	용산구 청파로 139-21	02-714-9762~4	http://yongsan.seoulwomen.or.kr
	중랑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프라자 3층	02-3409-1947~9	http://jungnang.seoulwomen.or.kr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6층	02-921-2020	http://www.job2060.or.kr
	강북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 3층	02-980-2377 02-980-2381	http://www.womanjob.or.kr
	노원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02-951-0187~8	http://www.job365.or.kr
	은평	은평구 통일로 750 경일빌딩 2층	02-389-1976	http://www.epwoman.or.kr
	서대문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혜우빌딩 4층	02-332-8661	http://www.workers.or.kr
	강서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5층	02-2692-4549	http://www.hrbks.or.kr
	구로	구로구 공원로 63, 2층	02-867-4456	http://www.kurowoman.com
	영등포	영등포구 영중로61(영등포동 6가) 극동빌딩	02-858-4514~5	http://www.ywcajob.or.kr
	동작	동작구 사당로 299 이수텐빌딩 2~5층	02-525-1121	http://www.djwoman.or.kr
	관악	관악구 쑥고개로 75 광장빌딩1~5층	02-886-9523~5	http://www.kwoman.or.kr
	서초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3	02-6929-0011	http://seocho.seoulwomen.or.kr
	송파	송파구 중대로9길34 대호빌딩 2층	02-430-6070	http://songpa.seoulwomen.or.kr
	성동	성동구 무학로2길 54 신방빌딩 1층	02-3395-1500	http://sd.seoulwomen.or.kr
	강남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서울의료원 신관1층	02-6929-0002	http://kangnam.seoulwomen.or.kr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가족 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
기획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eoulfamily.or.kr/intro/vision
집필진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수정(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훈(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
펴낸 곳	서울특별시
발행	2016년 12월
편집 디자인 · 인쇄	디자인공간 짜임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출판일련번호	여성 912-0001

본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BN 979-11-5621-980-4

